



기독일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www.christ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4호

예장 합동 차기 목사부총회장 선거 레이스 돌입

김동관·민찬기·장봉생 목사 추천받았지만 민 목사는 자격 논란

예장 합동 차기(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3명이 각 소속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선 자격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 장봉생 목사 “부흥 위한 플랫폼 제공”
서울노회는 16일 서울 중신교회에서 제105회 정기회를 갖고 장봉생 목사(다가죽서대교회)를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장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생산적인 기구와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초고령 사회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사회적 약자를 담아낼 수 있는 전략적 그릇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 연금 의무화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목회자 사레비 기준안을 마련해 지역과 교회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단과 신학교 협업체를 통해 2030년 변곡점을 지나는 목

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 소속 신학교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부흥운동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모든 노회와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기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지운동, 학교운동 등의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시대적 부흥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목사는 예장 합동 군선교회장,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장, 서울노회장,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 김동관 목사 “총회의 화합과 균형 위해”
앞서 동안주노회는 지난 8일 서울 상계제일교회에서 제200회 정기회를 갖고 김동관 목사(수원안대교회)를 역시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 목사부총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총회가 화합과 균형을 잘 잡아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왼쪽부터) 김동관 목사, 민찬기 목사, 장봉생 목사(이상 가나다 순)

함께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계 연합활동에도 힘쓰겠다”며 “장자 교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기독교 이슈와 국가적 위상이 결된 주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교단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장 합동 신학부장, 학생지도부장, 고시부장, 헌의부 서기,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등을

역임했다. 현재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민찬기 목사 추천됐지만 입후보 자격 논란
서울북노회도 16일 경기도 고양시 하림교회에서 개최한 정기회에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를 만장일치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민 목사에 대해선 교단 내에서 입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상황이

다. 앞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동일 선출직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명시한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을 부총회장

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선출직 입후보 자격 기준에 대해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서 이렇게 개정됐다.

그런데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 이에 제103회와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던 민 목사의 입후보 가능 여부, 즉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의 부총회장 입후보 경력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선관위가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노회가 민목사를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 ‘생명주일예배’ 성료

한국로잔·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최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마무리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공동주최하고 대구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12일 금요일은 저녁 8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동신교회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됐다. 이어서 14일 주일에 ‘생명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날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국제로잔운동 이사, 한국로잔위원회 법안이사)는 설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이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한 고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의 제네바 선언에서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

간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수정된 순간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게는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며 “사람을 공격하는 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체 소개(한국로잔위원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특별 찬양(주는 비록 아름다우나 고향 서운화 목사), 대표 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고, 대표 기도는 태아를 위한 기도(이봉화 상임대표), 부모의 회개 기도(이재훈 목사), 청년의 회개 기도(한국정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모든 예배는 생명주일예배로 드리며 태아의 생명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받는 시간이었다.

앞서 ‘고난주간 특별예배’에서 8일 김현철 목사(전 목산교회 담임, (사)프로라이프 고문)가 ‘생명주간 선포’, 9일 홍순철 박사(고려대 산부인과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생명위원장)가 ‘낙태’, 10일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생명윤리학회 상임이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11일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가 ‘저출산의 위기’, 12일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가 ‘로잔과 생명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주최 측은 “보이지 않는 태중 아이들의 생명을



지난 14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린 생명주일예배 모습. ©주최 측 제공



문대원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함부로 해치는 행위가 우리 사회 안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때”라며 “올해 4회째를 맞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죄를 통회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6주 된 태아를 2천만 원에 낙태한 사건이 있었다. 낙태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산부인과 중상당수가 30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5년 동안 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낙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2만 6,985건 → 2020년 3만 2,063건) 헌법재판소가 낙태 상한선으로 판단한 임신 22주를 초과하는 30주 이상의 태아들을 무분별하게 낙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3월 4일 세계 최초로 프랑스가 헌

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미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프랑스 국내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조치가 미국과 주변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죽음의 문화에 대한 경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다른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각 나라의 자신의 국가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1989년에 조직된 이래로 국내외 교회 및 다양한 복음주의 선교단체지도자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로잔위원회와 2020년 9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뜻을 같이한 종교계, 학부모 단체, 여성 단체, 미혼모 단체 등 60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낙태법 폐지 반대와 낙태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함께 모태에서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서 한국과

세계에 복음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매년 고난주간 다음 주에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교회가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를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장 작은 자인 수도 없는 태아들을 생각하며,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망의 기류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 22대 국회에서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지성호 “北 자유 위해 기도... 독재정권과 계속 싸울 것” >> 3면

김남국 목사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뛰어 넘는다” >> 22면

강남 20분대! 용산 10분대! 여의도 10분대!
서울의 중심에 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강남·용산·여의도의 가치를 모두 누리는 집!

강남생활권 일반분양 아파트
-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

14, 15구역
신통기획 확정
및 모아타운선정

계약금 정액제
1천만원

3천만원 상당
옵션 무상제공

거주의무 **無**
청약통장

59㎡A·B / 74㎡A / 84㎡A·B·C 총 771세대
02)575-0771

“지도자들, ‘민심’ 넘어 ‘천심’에 겸허히 귀 기울이길”

한장총 대표회장 천환 목사, 지난 총선 관련 성명 발표 “민심, 준엄하나 절대 선 아나 그것만 좇는 건 인기영합주의 생사화복, 전적으로 하나님께 與는 쉐신, 野는 겸허한 자세를 기독 의원들, 성경 가치 지켜야”

겸허히 귀 기울이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천 대표회장은 “제22대 총선이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승패와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고 저마다 그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민심’은 준엄하나 절대 선은 아니며, 오직 그것만 좇는 정치는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



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민심’을 넘어 ‘천심, 즉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천 대표회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패배를 냉정하게 반성하며 뼈를 깎는 쇄신을 하길 바란다.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는 정치력과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정부 여당이 비록 의석 수로는 패배했지만, 총 득표 수로는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의 국민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선택했던 것은, 그가 이 사

회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바로 이 점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겸허한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 국민이 후보들의 불법과 만연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특별히 형사 피고인들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며 “또한, 힘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견제할 것은 견제되도록 협조할 것은 잘 협조하며, 오직 국가 발전

과 안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정치권을 향해 성경적 가치를 근거로 ‘예’ 할 것, ‘예’ 하고 ‘아니오’ 할 것, ‘아니오’ 하지 못했던 것과 리더십을 살으로써 보여 주지 못했던 것 등을 반성해야 한다”며 “한 경직 목사님과 같이 삶으로써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독 정치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적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성경적 가치를 지켜 주길 바란다. 단순히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를 초월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모든 지도자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 개선점을 만들으로써 민의가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대표회장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 땅의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며 “한장총은 앞으로도 정치권을 향해서도 애정 어린 조언을 계속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천환 목사(사진)가 지난 제22대 총선과 관련, “민심 넘어 ‘천심’에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 위해 정치 감시자 역할 해야”

살롬나비, 제22대 총선 관련 논평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대한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이번 총선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 비방으로 얼룩진 저질 선거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보다는 선거 주민들에게 지역

개발을 미끼로 표를 구걸하거나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이 거의 모든 선거 현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차분한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여 언어적으로 살벌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은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선진국 사회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정치인들의 자질도 문

제이며,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미숙한 수준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적으로 계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운동권 세력 청산을 요구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의 정권 심판이 승리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에 내로남불 행태로 윤리가 실종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론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세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 절차에 있어서 조국, 황윤하 등 형사 피고인이 선거로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공당을 만들어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범칙의

식의 부재를 말해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살롬나비는 “사법당국은 정치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법치를 세우나가야 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하여 그것이 혐의를 지닌 당선자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지난 4년처럼 입법 폭주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독주와 독선과 탈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의 정체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의 과도한 입법을 통한 국정 훼손과

국정운영의 포퓰리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민들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그리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을 섬기는 헌신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네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 유망 스타트업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교회언론회 “국민들 선택, 항상 옳은 것 아냐”

4·10 총선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이번 4.10 총선 결과와 관련,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지난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여대야소를 만든 것과는 판이한 현상”이라며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현범계 성과 대통령 탄핵소추만 마음대로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국정에 혼란이 오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가 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견된다”고 했다. 이어 “그뿐인가? 제22대 국회에서 거대한 더불어민주당 권력 하에서 여러 가지 악법들이 발의되었다. 동성애 지지자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군형법개정안,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이라며 “또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수 있



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교회를 폐쇄시키게 할 수 있어,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한다. 이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외교·국방·안보·민생 등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 심각함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런 정국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의정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재적 횡포를 막는 방법은 국민의 감시를 통해서이다”라고 했다. 이어 “셋째는 정치인들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의 감시를 통해서이다”라고 했다. 또한 “넷째는 이제 국민들이 그 자각지대로 ‘또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수 있

색을 정치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이제 식상하다. 한 지역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공산주의 외에는 드문 일”이라며 “범죄자도 파렴치한 전과자도 반국가적 인사에게 묻지 마 투표로 당선시키는 것은 지독한 국민의 수치이다. 그리고 정의를 무너뜨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다섯째 우리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국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자질을 정치지도자로 뽑아주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정치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선진정치를 위하여 국민들의 바른 역할이 나타나야 한다. 또 정치인들도 자기들만의 세력화, 정권무력화, 정치보복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홍 목사 “국민의힘·민주당 다 실패한 선거”

김진홍 목사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다 실패한 선거”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14일 신광두레교회 주일예배 설교에서 “4월 10일 선거를 마쳤는데 국민의힘이 108석, 민주당이 192석을 확보해서 선거가 아주 참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92석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과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 숫자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의 의석 수는 175석이다. 김 목사는 “민주당(범 야권)이 192석이나 엄청난 숫자를 받았으면 승리하고 성



설교하는 김진홍 목사 ©신광두레교회

공한 것이 왜 실패한 것이냐”라며 “192석 판 뒤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보면은 짐작이 간다. 그 사람 별로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없었다. 좀 침울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200석

을 넘어야 헌법을 바꿀 수 있다. ‘개헌선’ 그린다. 200석이 안 되면 자기는 감옥을 가게 돼 있다”고 주장하며 “그냥 감옥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면 다음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게 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기로서는 실패한 선거”라고 했다. 그는 “또 조국이란 분이 등장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표를 많이 받아 갔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실형을 받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며 “다음 수순으로는 야당 대표도 조국 박사도 정치 일선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지성호 의원 “北 자유 위해 기도… 독재정권과 계속 싸울 것”

제21대 국회의원 활동 마무리하는 소회 밝혀
어둠 가득한 북한 땅 놓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
北 주민 인권·자유 위해 국내외 앞장서 목소리
2천5백만 북한 주민들, 거대한 감옥에서 신음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미래·부산)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독재정권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서 이 같이 밝히며 “나이가 통일이 되었을 때 평양 중심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던 지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 오던 지 의원은 그러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지 의원은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어둠이 가득한 북한 땅을 놓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IPAC 정상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과제로 올리고 중국 내 북한 주민 강제 복송 저지이행 결의를 끌어냈다”고도 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을 포함해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복송된 600여 명의 탈북민들과 복송 위기의 2천명의 탈북민이 있다”며 “또한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18년 전,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며 “정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지독한 가난과 장애, 차이, 굶지 않은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의 극복과 성공이 곧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이자 용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고 했다.
지 의원은 “그 결과 지금보다 탈북민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척박할 때에 우리 당은 가까이 저의 노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었고 북한의 꽃재비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전무후무한 사

례를 만들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고자 국회의원 당선 후 지난 4년 동안 탈북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낯날 주말 할 것 없이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춰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이제 저는 당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교리, 성경·신학적으로 적합”

이신건·최태영 박사, 온신학회 제53차 정기학술세미나서 발제

온신학회(회장 최태영)가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광성교회(담임 남광현 목사)에서 제53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태영 교수가 좌장으로 ▲이신건 박사(생명신학연구소장)가 ‘부활 신앙의 기원과 부활의 시간’ ▲최태영 박사(온신학회 회장, 온신학대구아카데미 회장, 교회신학연구소 소장, 영남신대 명예교수)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논쟁’을 신학적 적합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현재적 부활·죽음 속의 부활·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네 가지 견해

먼저, 이신건 박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특히 헬라적 사유 체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영혼의 불멸 이론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록 전통적 신학이 중간 상태 곧 죽은 자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사고로부터도 적잖은 도움을 받았지만 몸과 정신 또는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이원론적으

로 설명한 그의 체계를 아무런 비판과 수정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몸과 물질과 현실 세계까지 경시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본질을 세계의 갱신과 완성이 아니라 세계의 초월이나 세계 도피를 통해 설명하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도 신경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신앙고백과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주류 신학자들이 부활의 사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특히, 부활의 시간을 중심으로 현대신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현재적 부활, 죽음 속의 부활, 종말론적 부활로 나타났다”며 “그리스도인이 믿고 소망하는 부활의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여야 한다

고 우리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관점과 사유 체계 속에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늘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세 가지 견해를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거나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 견해를 골라야 주장하는 입장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의 장점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다른 견해를 무시하거나 배척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독점하려는 오만에 빠질 수 있다”며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매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견해로 비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로 세 가지 견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단점을 최대한 배제하는 가운데서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견해를 선택하려는 입장을 들 수 있다”며 “이것은 삼위일체론처럼 하나의 실체를 세 가지 양태로 설명하려는 입장과 비슷하다. 이것은 점점 더 다원화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다른 견해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입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매우 모호해져 버리거나 자의적 임의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되며, 시대와 상황에 적당히 영합하려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과 같은 태도로도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현재적 부활’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일어난 최종적 부활의 선취로 해석하는 입

장을 들 수 있다”며 “이 입장은 가장 건전하고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적절히 설명하고 조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위기와 시대적 전환 앞에서 너무나 자주 극단적 입장에 치우치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활을 점진적 과정적 사건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라며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회피하려는 신학자들은 종종 완성되거나 성장하는 종말론을 제시하곤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겨자씨, 누룩의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확장 실현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부활은 세 가지 다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며 “첫째로 현재적 부활은 정신의 부활과 같다. 물론 정신은 몸과 전혀 무관하거나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현상이 아니다. 정신의 부활은 부분적이거나 몸의 부활로도 나타나며, 그래서 전이적 부활로도 경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로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몸의 부활과 같다”며 “물론 죽음 속에서 첫 번째 몸은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덧입거나 같이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몸도 분명히 하나의 몸이라는 점에서 예전의 몸과 함께 비연속성만이 아니라 연속성도 띠게 된다”고 했다.
또 “셋째로 종말론적 부활은 우주-총체적 부활로서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교통과 투명함 사귀를 초래한다. 개인적 부활



온신학회 제53차 정기학술세미나 진행 사진. ©온신학회

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적 부활로 완성된다”며 “이러한 입장은 만물을 과정적, 점진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현대인의 세계관에 매우 잘 맞다는 장점은 지니지만, 이를 함라경험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여전히 지닌다”고 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옛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며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투명하게 보게 될 것이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라나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 성경적이고 기쁨과 소망 가득한 교리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최태영 박사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과의 관계는 은폐와 현현의 관계”라며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거함으로써 지상의 관점으로는 은폐되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현현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현세의 몸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몸은 물질적으로 상이함에도 불

고하고 동일성을 가질 수 있다”며 “동일성은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삶의 역사를 기억하는 영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박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보편적인 부활 곧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차이를 보인다”며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특별한 부활이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부활체를 덧입으셨는데 이로써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보편적 부활임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첫 열매는 시간상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증 또는 근거라는 의미가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하여 종말론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가 성경적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신학적 적합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통적인 어떤 부활론보다 더 성경적이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김장환 신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선출



대한성공회는 김장환 신부(사진)를 7대 서울교구장으로 선출했다.
대한성공회 측은 김장환 신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60차 서울교구의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구장에 선출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장환 신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현 서울교구장인 이경호 신부를 대신해 서울교구장의 역할을 시작한다. 1964년생인 김장환 신부는 1998년 5월 서품을 받은 후 수원교교회 보좌사제와 오산세마대교회 관할사제를 지냈으며, 교구 선교교육국장, 분당교회 관할사제를 역임한 뒤 현재는 대학로교회 관할사제로 활동 중이다. 노형구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훽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Sanctuary for the senses
BANYAN TREE
HAERUNDAE BUSAN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일장신대, 故 김용복 총장 유고집 출판기념회 및 판권기부서명식 개최



故 김용복 총장의 유고집 판권 기부서명 기념 사진(왼쪽부터 배성찬 총장, 김매련 사모, 추모기념사업회 백남운 공동위원장) ©한일장신대

故 김용복 전 총장 가족 및 40여 명 참석

한일장신대학교(총장 배성찬)가 김용복 前 총장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한일장신대 대회의실에서 '故 김용복 초대총장 유고집 출판기념회 및 유고집 판권 기부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의 미망인인 김매련 사모와 가족, 고 김용복 목사 추모기념사업회 공동위원장인 백남운 목사(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임희보 명예교수(한일장신대),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 교수들과 제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성준 교수(한일장신대 신학

과)의 사회로, 백남운 공동위원장의 인사, 임희보 공동위원장의 경과보고, 최덕기 목사의 성경판소리 '주님따름' 축가, 이만열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숙명여대 명예교수)과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임종한 이사장(인하대 교수), 한일장신대 총동문회 부회장 홍철원 목사, 한일장신대 배성찬 총장이 각각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기념사업회 총무 홍주형 목사가 첫 추모유고집 「한국 기독교 사상의 전개」를 김매련 사모에게 전달했고, 배성

찬 총장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 사모는 "이 책을 통해 전해지는 김 박사의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민중을 치유해주고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은 이 유고집의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

다"면서 "갑박사님도 생전에 항상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축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고집 판권을 한일장신대에 기부하는 협약서에 김 사모와 추모기념사업회 백남운 공동위원장, 배성찬 총장 등이 서명했고, 참석자들은 김총장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 586장(어느 민족 누구게나)을 부르며 김 총장을 추모했다.

배성찬 총장은 "가족들과 기념사업회의 헌신으로 발간된 이 유고집이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요한 기자

한가협, '정품 성경적 성교육 강사양성 과정' 43기 줌(ZOOM) 강의 개강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한가협)가 주최하고 에이랩아카데미가 협력하는 정품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 12주 과정이 지난 6일 개강했다.

한가협은 "왜곡되거나 경도되지 않은 정품 기독교 성교육으로 교계에 자리매김한 에이랩 아카데미 성교육은 두란노, 한국장로교출판사 등을 통해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공과 교재 및 가이드라인 서적,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찬양과 율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시기에 정품 기독교 성교육을 받게 되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편향된 학생인권조례, 성적 자기 결정권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동성애와 미성년 시기 성행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을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세상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포괄적 성

교육과 성경적인 건전한 성 가치관을 교육하는 한가협의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 가는 추세라고 한 기독교 매체는 언급한 바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 성교육을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가협은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내 몸은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야 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일에 대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

집였다.

하지만 교계 전문가들은 "미성년인 학생에게 성관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기보다 상대방과 합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무분별한 임신과 출산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자연스레 인본주의적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고 문화 명령에 대한 망각 및 음란물의 범람이 차세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가협은 전했다.

성교육 전문 강사를 길러내는 이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이성 교제의 성경적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위한 멘토링은? ▲음란물 어떻게 차단할까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건강한 소통법은? ▲과도한 피임 위주 성교육 문제점과 대안은? ▲남녀의 특별함과 생명윤리 교육 등 주제별로 확실하게 습득해 성경적 성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한가협 대표인 김지연 약사는 "무엇보다 현재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명을 경시한다는 점"이라며 "동성애와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옹호하는 현 성교육 추세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



에이랩 수료자가 대전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마약 예방 교육 및 성가치관 교육을 반별로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끼는 교사, 학부모, 목회자, 청년이 많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는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배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랩 수료자로서 현재 에이랩 전남 광주 지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김다정 지부장은 "차세대를 인도하기 전에 크리스천 양육자들이 먼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탐제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성교육 특성상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실시해야 한다. 저자는 이미 세상의 많은 정보와 통계들이 성경적 성 가치관이 옳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에이랩 성교육 아카데미는 성경적 성교육은 왜-누가-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과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활용해 명확하게 제시한다. 초신자이거나 성경적 성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가협 관계자는 "43기가 마감되자마자 또 44기 개강은 언제 하는지 문의가 오고 있다. 하반기 에이랩은 9월 초부터 진행 예정이다. 갈수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 10.6% 볼 탄력 개선
-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검색 | 전국 대리점 및 윌리엄스 매장

※ 사용 7일 후, 안개 적용 시점 기준 (시험기간: 2023.01.25~2023.03.31) (사후조사: 82% 이상 30일 (사후조사) (다중교차연구결과))

군포시민교회,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전달

군포시민교회가 최근 군포시장실에서 (재)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으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시민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으로 군포시 장학금 조성에 기여했다.

김성철 (재)군포사랑장학회 이사장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잘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학회 명예 이사장인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민교회에 대해 꾸준한 장학금 기탁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중한 기금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사랑장학회는 올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238명에게 총 3억71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후원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 ©군포시

교회개혁성장학교, 오는 29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서 열려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성 사랑의교회에서 제22회 교회개혁성장학교가 NOVOKOREA 주최로 열린다.

이번 학교는 매년 4월에 개최되며, 개척준비 중이거나 이미 개척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초대해 부흥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다.

주요 강의 내용은 목회철학 세우기부터 시작하여 후원자와 물질 후원자 모으고 관리하기, 개척 팀 구성과 훈련, 비전 전달과 지도자 양성, 지역사회 이해와 전도, 건강한 교회 구조 세우기, 사역 계획 수립, 창립 예배 준비, 교회 활성화, 개척자 적성검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최승호 목사는 하늘정원교회를 개척하고 중영교회로 성장시킨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품을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역 노하우를 나누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한신대·카이스트 공동연구협력 기념강연 열린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종교과학센터(센터장 전철)는 한신대·카이스트 종교과학 공동연구협력 기념 강연을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캠퍼스 채플실에서 진행한다

종교과학 석학 초청 초청 기념 강연으로 이번 주제는 '성경과 뇌과학'이며, 카이스트

트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그는 뇌와 행동의 관계를 유전학 및 신경회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뇌과학자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초청 강연과 카이스트 10대 연구, 소셜 DNA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신대·카이스트

종교과학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신대와 카이스트는 양교가 그간 축적한 종교와 인간에 대한 성과와 카이스트의 신경과학과 자연과학의 성과를 응집하여 미래 사회 쟁점의 해법과 과제를 모색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예장 국제연합, 신임 총회장에 김영빈 목사 선출

4월 10~12일, 한국에서 처음 정기총회 개최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UPCA)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 뽕엘실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엡 6:19)'라는 주제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UPCA는 지난 2004년 3월 24일 미국 동북부의 뉴욕과 필라델피아,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미 동남부의 아틀랜타, 남미의 볼리비아 등 한인 중심 목회자가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와 정진으로 복음 협력 공동체를 만든다는 이념으로 태동한 이래 21회기 만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총회를 열게 됐다.

이번 총회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노회에서 8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선 총회서기 임석현 목사의 인도로 동북노회 김주환 목사의 기도, 플로리다노회 김하나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차기총회장 김영빈 목사가 '담대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서노회 아우베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성찬식에는 김문기 목사, 박흥기 목사가 분별을, 김에스터 목사, 남승분 목사가

분장으로 참여했으며 북가주노회 김환일 목사의 축도 후 총회서기 임석현 목사의 광고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회무처리 시간에는 의장 김윤식 목사의 개식사, 동북노회 육민호 목사의 개회기도, 총회서기 임석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김윤식 목사의 개회선언이 있었으며 제21회 총회준비위원장 김영빈 목사(차기총회장)가 인사를 했다. 이어 오산리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의 환영사, 총회서기 임석현 목사의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김진범 목사, 볼리비아 Angel Sumami Parapaino 시장,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튿날인 11일 오전 회무처리 전 내빈으로 참석한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세기종 중경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헌의안 보고, 공천부 보고, 사무 보고, 감사 보고, 회계 보고 후 상임위원회 보고, 각노회 보고, 선교 보고, 신학교 및 기관 보고가 있었다.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UPCA) 제21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PCA

또 총회서기 임석현 목사가 실행위원회 보고 및 가결처리를 했으며 위원장 김종인 목사가 인사위원회 보고 후 가결이 있었다.

증경총회장 황의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규임원 아취임식에선 황의준 목사의 개식사에 이어 신임총회장 김영빈 목사의 선서가 있었으며 황의준 목사의 위임기도, 신임원과 증경총회장단의 악수례 후 김윤식 목사가 신임 총회장 김영빈 목사에게 총회헌법 및 의사봉, 총회기를 전달했다.

이임총회장 김윤식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다. 신임총회장 김영빈 목사는 취임사

를 전하고 총회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신임원에는 ▲총회장 김영빈 목사(텍사스노회)를 비롯해 ▲차기 총회장에 육민호 목사(뉴저지, 동북노회) ▲장로부 총회장에 유규철 장로(미국 동북노회) ▲차세대 부총회장에 최치호 목사(미국 동북노회) ▲서기 임석현 목사(미국 동남노회) ▲부서기에 정유진 목사(미국 평안노회) ▲회계에 조연식 목사(동남노회) ▲부회계에 최병국 목사(서울서노회) ▲회록서기에 박흥기 목사(북가주노회) ▲부회록서기에 구바울 목사(서부노회) ▲감사에 김주환 목사(미 동북노회), 오충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UPCA) 신임 총회장인 김영빈 목사 ©UPCA

환 목사(필라델피아노회) 등이 선출됐다. 이어 신규임원들의 기념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신임의장 김영빈 목사의 사회로 신안건 및 기타 안건토의가 진행된 뒤 폐회예배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부노회(노회장 김상우 목사)가 상정한 '한반도 통일 대비 특별위원회 조직의 건', 동북노회(노회장 김주환 목사)가 상정한 '육민호 목사 차기 총회장 후보 추천의 건', 서부노회가 상정한 '신학교 인준의 건', 과테말라노회(노회장 Miguel Angel 목사)가 상정한 '노회 분립 청원의 건, 텍사스노회가 청원한 '노회가입 청원의 건'에 대해 논의됐다.

신임총회서기 임석현 목사의 인도로 드린 폐회예배에선 북가주노회 양병모 목사의 기도, 동북노회 남승분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신임 차세대부총회장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동북노회 최치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신임총회장 김영빈 목사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정기총회 기간 동안 4월 11일과 12일 새벽에는 새벽집회가 있었으며 4월 10일과 11일 저녁에는 특별성회를 진행했다.

10일 첫날 저녁에는 뉴욕노회 홍민 목사의 인도로 동북노회 이영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다음날인 11일은 동북노회 육민호 목사의 인도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이사장 송일현 목사(보라성교회)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11일 오후 최규환 목사의 'UPCA 교단의 정체성'에 대한 특강을 통해 교단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11일 오후에는 UPCA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차동욱 목사)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김양재 목사 “죽은 의사 남편이 남긴 병원, 미혼모 돌보는 시설로 기증해”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사진)가 최근 주일예배 설교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김 목사가 기부하겠다는 이 건물은 그녀의 남편이 1980년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술을 행했던 병원으로, 1987년 숨진 뒤 김 목사와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이었다.

우리들교회는 김 목사로부터 기부받은 건물을 사회복지재단 '한사랑'을 창립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 돌보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양재 목사는 지난 7일 성남시 소재 판교 우리들교회 예배에서 전한 설교에서 이 같은 기부사실을 알렸다.

김 목사는 “80년대 무자식 삼팔자 시대 산부인과는 가족계획 지정병원으로 온 나라가 낙태에 골몰하던 때였다”며 “장로 아들로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남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뇌하기도 했다”

고 했다.

이어 “그는 죄악을 남김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상을 떠났다”며 “남편이 그날 죽기 직전 ‘주여라는 의미미 짧은 회개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망자로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개한 남편의 낙태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죄책감이 제 마음 한켠에 생겼다”며 “부부는 한몸으로 남편의 죄는 아내의 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목사는 “북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처럼 이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창조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라며 “결혼은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받으며, 아이를 가져도 죄책감이 없이 낙태를 하는 등 이런 일들로 인해 나라를 저출산 위기에 놓았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차별금지법과 낙태 반대운동을 벌였고, 가정 중수가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명을 키우고자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로만 설교하고 내 속에 죄의식을 가지면서, 저부터 손이 아닌 심장을 돌이키는 적용을 하기로 한다”며 “남편과 저의 회개를 받으셔서 모두 이 회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양재 목사는 “저와 남편은 생명사역을 위해 43년동안 갖고 있던 남편의 병원 건물을 이 교회에 헌납하고자 한다”며 “죄책감의 장소였지만 하루만에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회개의 장소로 변했다. 남편이 천국에 간 이후 우리 가정을 위해 가까워 같은 장소가 되고, 교회 큐티(QT) 모임을 진행했던 이 곳이 어린 생명과 부모를 위해 남김없이 드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시작이 반이라고 선포부터 먼저 하겠다”며 “이 장소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생명으로 돌이키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부산의 119구급차, 우크라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투입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내구연한이 지나 일선에서 퇴역한 부산의 119 구급차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을 누비면서 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현지에서 알려졌다. 15일 밝혔다.

그린닥터스재단과 폴란드 적십자사에 따르면,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퇴역 구급차 12대가 지난 11월 23일 부산 신항에서 출발하여 우크라이나로 운반되었다. 이 구급차들은 지난 2월에 폴란드로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월 20일 이중 4대를 동부전선으로 보냈으며, 나머지 8대는 2월 23일 루블린 국경도시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인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것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와 그린닥터스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쟁 중인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구급차들은 연전



부산 119 구급차가 우크라이나 응급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성능 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의 손상 부분은 세심하게 수리되었다.

한편, 그린닥터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지 3개월 뒤인 2022년 5월 12~20일 부산 온종합병원 의료진과 그린닥터스 회원 등으로 의료팀을 꾸려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의료 지원에 나섰다. 정근 이사장이 부산의 불용 구급차들을 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쟁 중인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구급차들은 연전

라이나로 보내지게 됐다.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은 “부산의 구급차량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응급환자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어느덧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은 파멸해질 대로 파멸해졌”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린닥터스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의료팀을 꾸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나누는 예은교회 광건섭 목사

건강한 사역자를 찾아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는 가문으로 성장
선교지 현지 사역자 양육의 보람
예은교회의 행복한 목회 감사



예은교회 광건섭 목사. (맨 뒷줄 왼쪽 끝.) ©예은교회

예은교회 광건섭 목사는 경북 영양, 일월산 아래서 자랐다.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는 원래 독실한 불자였다. 절의 살림살이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다. 그러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선교사의 권면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 후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며 교회당을 세웠다.

할아버지는 지역과 가문의 선각자 역할을 했다. 보수적인 경상도 지역에서 선교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광건섭 목사의 부모님(곽병기 장로, 김노미 권사)은 한층 더 헌신된 모습으로 고향교회를 섬겼다. 교회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 광건섭 목사의 기도도 자녀 6남매가 모두 목사, 사도, 장로, 그리고 권사로 성장했고, 사위들도 목사와 장로다.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은 광 목사 형제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다. 얼마 전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장형 광만영 장로는 교직에서도 은퇴하고 장로직에서도 은퇴한 은퇴 장로이지만 늦게 입문한 문학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교향과 모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광건섭 목사의 누님과 매형도 신실한 신앙인이자 교장직과 장로직을 은퇴한 매형은 인생의 후반기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즐기며 이곳저곳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동생 광성섭 장로는 미국으로 건너와 사업을 한다. 광성섭 장로는 예은교회 시무 장로다. 건실한 비즈니스를 하는 광 장로는 선교와 교회 섬김에 앞장서는 예은교회 기동이다.

광건섭 목사 가문이 믿음의 복을 받은 증거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건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광 목사 세 딸 그레이스(은혜), 유진(글로리아), 그리고 은진(사론) 세 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광 목사 사역의 든든한 조력자다. 광건섭 목사의 세 딸도 그렇지만 조카들도 모두 신실한 신앙인이다. 광 목사 가문은 5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다.

광건섭 목사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종신대학교에서 종교음악을 공부하며 신학과 과목도 수강했다. 원래 종교음악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었다. 그 시절 교회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큰 힘이 된다. 대학

을 졸업하고 입대를 했다. 군인교회에서 신학대학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한 그는 쓰임이 많았다. 군종병으로 목사님을 보좌하며 교회를 섬겼다.

전역하며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학교는 교단분규로 혼란스러웠다. 학교와 교단의 분열로 갈등하던 시기에 한 자매를 만났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해 간호사가 된 자매는 미국행을 준비하는 자매였다. 가족들은 이미 이민하였고 좋은 결혼 상대를 찾는 중이었다. 여러 가지 통하는 부분이 많아 교제하며 결혼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광 목사는 종신대학 신대원 재학 중 도미해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졸업 후 Bethany Theological Seminary(Ph.D)에서 공부했다. 1985년 목사안수 후 일신장로교회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섬겼다. 1991년 12월 1일 일곱 명이 모여 선교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 후 광 목사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예은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선교였다. 요즘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예은교회는 지금까지 그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

광 목사는 1992년부터 선교를 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1년에 두 번씩 선교지를 방문했다. 수십 년간 선교하며 사역자를 양육하고 있다. 선교가 쉽지 않지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되어 버렸고, 선교지 현장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교지를 외면할 수가 없다.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광건섭 목사도 선교지의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다.

광건섭 목사가 선교 중에 많은 위로와 축복을 누린다. 기적적으로 선교비를 채워 주시고, 공안에 잡히는 등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한다. 현지 사역자를 양육해서 든든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람이요 기쁨이다.

예은교회 성도들과 선교 동역자들의 협력과 응원도 선교의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예은교회 성도들은 광 목사의 선교 열정을 100% 이해하고 협력한다. 그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지속적 선교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선교지와 한국에서 선교에 협력하는 선교 동역자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동참에 늘 감사한다.

예은교회를 섬기는 광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그는 늘 자신의 행복한 목회에 감사한다. 예은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아등바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감사하는 광 목사는 늘 섬기고 나누려 한다. 믿음의 가문을 이룬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삶과 형제와 광 목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눔과 섬김이 정답이라는 것을 체득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행복한 목회자 광 목사는 감사 제목이 많다. 목회에 큰 갈등이 없다는 것이나 사역의 보람이 감사 제목이다. 평강이 넘치는 예은교회를 인해 감사한다. 광목사는 요즘 은퇴를 위해 기도한다. 목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목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다. 강태광 기자

美아이다호 주지사, “성별은 남녀만 존재” 법안 서명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가 인간의 성별은 남녀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아이다호 주지사는 하원법안 421(HB 421)에 서명했다. 지난 2월,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54 대 14로 승인되었으며, 이달 10일 상원에서 26 대 8로 통과되었다.

하원법안 421은 아이다호 주법을 수정하여 '성(sex)'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별만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문구는 “아이다호 주의 편찬된 법률, 규칙 및 정책”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은 ‘성’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한다. 이는 남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절차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난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안은 ‘소년’을 ‘미성년인 남성’(minor human male), ‘아버지’를 ‘남성 부모’(male parent)로 규정하며, ‘소녀’를 ‘미성년인 여성’(minor human female), ‘어머니’를 ‘여성 부모’(female parent)로 정의한다.

이 법안은 ‘성별(Gender)’이 남성,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자연적인 차이를 지칭할 경우 ‘성’의 동의어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에 대한 내적 감각’(internal sense of gender), ‘경험되는 성별’(experienced gender),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또는 ‘성 역할’(gender role) 등은 동의어로 보지 않는다.

법안은 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인 “불변하는 생물학적 및 생리학 특성, 특히 임신 시 유전적으로



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JSquish/ Wikimedia

결정되며, 출생 시 대체로 인식 가능한 염색체, 내부 및 외부 생식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을 새로운 정의로 삼았다.

이 법안은 “두 성별 간의 법적 행동이 성별이 서로 동일하거나,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별도의 시설, 주거 또는 숙박 시설 또는 체육팀, 프로그램 또는 리그는 법에 따라 불평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차이는 영구적이며, 두 성별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생물학적 성별 결정론이 성소수자(LGBT) 공동체로부터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 남녀를 벗어난 성별) 또는 다양한 성 정체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작년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세인트필립스칼리지(St. Philip's College)의 한 교수가 성별이 개인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후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교수는 생물학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종교적 설교,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발언, 반낙태적 표현, 여성 혐오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결국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불만을 제기한 후, 올해 초에 복직되었다. 유진 김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찾아가는 무료 유방암 검사 제공

남가주에서 유일하게 한인 시니어 전문으로 케어하는 센터메디컬그룹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를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여성이 70세 이상이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65세 전후로 유방암 검사를 받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된 사례가 많다. 이에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병원을 예약하고 또 병원까지 가서 기다리는 수고로움을 덜고자, 최첨단 유방암 검사가 가능한 버스를 대절하여 가입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유방암 검사(Mobile Mammography)라고 부르며 20분이면 손

쉽게 검사가 완료된다. 어머니들을 배려하고자 여대 여성 테크니션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5월에는 오리엔트카운티 지역과 사우스스미 지역을 진행하며, 추후 엘에이 지역 외 타 지역까지 확대된다.

하루에 최대 40명 예약을 받으며,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라면 누구든지 예약할 수 있다. 이날 참여한 가입 환자들에게는 센터메디컬그룹 고급 생활품이 든 구두백과 고급 염색약, 그리고 마켓 상품권까지 나눠준다. 김민선 기자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은행) 노란우산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예금보험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내부통제를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국 분쟁 해결과 이주민 사역, 선교사 훈련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AI의 도전 앞에서 사역자의 대응과 태도

지난해 상용화를 시작한 ChatGPT와 같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AI 기술은 목회를 비롯한 여러 사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빌린기독교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의 이스트(Brad East) 박사는 AI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목회자의 분주한 업무를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된 유혹에 빠지거나 사역의 소명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어떤 도구가 내 업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보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양 떼를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목회적 돌봄은 결코 생명이 없는 기술로 대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스트 박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AI와 ChatGPT의 확장보다 대체의 유혹이다. 새로운 기술들이 더 재미있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사역자들은 자칫 자신의 고민과 연구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멋진 설교 한 편보다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 위한 인내와 정직과 순종과 사랑의 덕목을 갖춰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AI 기술 발달이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사명감과 목회적 돌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유엔, 종교적 차이로 인한 폭력과 공격 규탄

3월 15일,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온라인상의 증오심 표현들이 실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무슬림과 유대인, 소수 기독교 공동체 등을 향한 공격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중동의 분쟁 속에서 이슬람 혐오 사건이 북미와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형태의 종교적 증오와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이 라바트 행동계획(2012년)과 베이루트 선언(2017년)에 기초해 전 세계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종교와 신념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엔 산하 인권 전문가들은 이슬람 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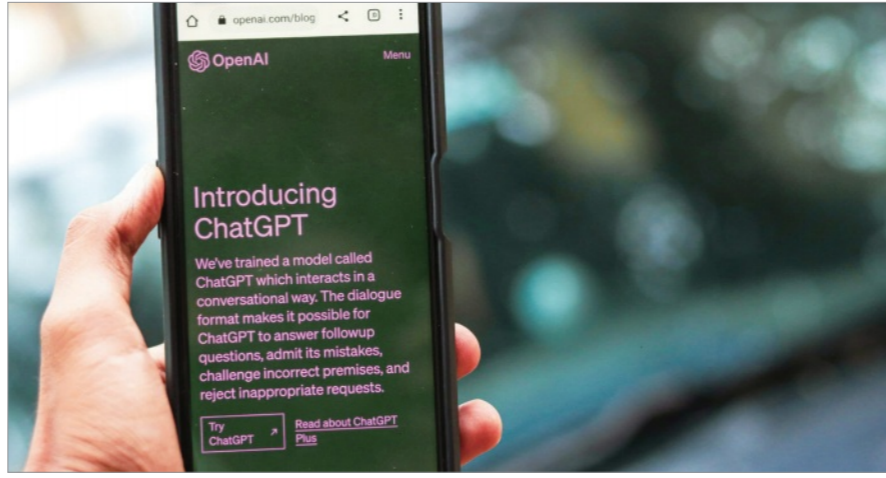
에 따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라마단을 지키는 동안에도 가지지구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분쟁과 강제 이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야 할 때라고 선언하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촉구했다. 기후, 식량, 전쟁 위기에 더해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한 분쟁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며 상처받은 사회를 치유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news.un.org, www.ohchr.org)

◇새로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지역 교회의 사역

의료 전문가로 아시아 지역 난민들 곁에서 수년간 일하고 워싱턴 DC로 돌아와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라 밀러(Sara Miller, 가명)는 난민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가 엄청나다고 말한다. 이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이웃들로 다가오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지역 교회들이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게 이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결코 일회성의 교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할지 고민하고, 타문화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회로 초대하기 전에는 이들이 자라온 문화권에서 방문과 초대와 교류의 방식이나 절차들을 숙지하여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지역 교회들이 고국을 떠나 새로운 타지에서 생활하게 된 난민과 이주민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과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0, no 1)

◇다중심적 세계에서 선교사 훈련의 몇 가지 원칙

국제선교사훈련네트워크(IMTN)의 코



AI 기반 프로그램들은 목회자의 분주한 업무를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더 재미있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면 유혹에 빠지거나 고민과 연구를 게을리하며 사역의 소명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pexels/Sanket Mishra

다데이터인 헤딩거(Mark Hedinger) 선교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서 모든 사람으로' 선교하는 다중심적(polycentric) 세계에서 선교사 훈련도 장소, 시간, 과정에서 유연해야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 훈련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기술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라. 일차적으로 기술과 방법에 매였던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관계를 단순히 서로 좋아한다, 함께 일한다의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참여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연해져라. 둘 중 하나(either/or)만을 고집하던 사고 과정을 벗어나 둘 다(both/and)의 관점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진리를 전하되 하지만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이나 삶과 사역에서 유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돼라. 이 시대에 선교사는 계속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은 스스로 배움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안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선교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선교단체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사들을 잘 훈련시켜 나가고, 현장 선교사들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0, no 1)

◇교회, 신앙과 정신 건강의 연결고리 마련해야

브라질 출신의 건강심리학자 보밀카(Karen Bomilcar) 박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평안을 증

진하면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도록 격려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보다 심도 있는 치료를 위해 크리스천 심리학자와 전문 분야 과학자들의 네트워크(CPPS)가 마련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신앙 공동체(Sanctuary Mental Health Ministry, Oasis Africa, Celebrate Recovery, Christian Asian Mental Health) 내에서 상처의 치유와 정신 건강 문제를 돕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밀카 박사는 다양한 대화와 강연, 그룹 및 개인 상담, 참여적 사역 제공 등으로 교회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면서 정신 건강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네트워크로 이끄는 사역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특별히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신 건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생의 여러 시기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거나 신앙과 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안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이 기독교 안팎의 사람들에게 전인적 돌봄을 향한 다리를 놓아주고, 교회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신자들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LGA 13, no. 1)

◇고아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 포럼 열려

전 세계의 취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기독교 운동인 고아없는세상(World Without Orphans, WWO) 주최로 제3회 글로벌 포럼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다. 2월 29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63개국에서 정부 관료와 NGO 실무자, 가족 강화 전문가, 고아 보호 담



고아없는세상이 주최한 제3회 글로벌 포럼이 태국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가족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당연한 취약성을 줄여 나가기 위한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고아 없는 세상을 향해 정부와 기업, 교회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WWO 유튜브

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WWO는 기존 발언에서 2020년 이후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의 확대, 기후 변화의 위기와 함께 사회 계층화, 정치적 분열, 이주, 마약성 약물 중독, 가족의 파편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WWO 수석 코디네이터인 프리젠(Karmen Friesen)은 지난 20년 동안 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수가 1,600만 명에서 1억 1,000만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하면서, 그중 4,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을 잃은 고아라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심각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희망으로 다함께(Together from Crisis to Hop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가족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에게 당연한 취약성을 줄여 나가기 위한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고아 없는 세상을 향해 정부와 기업, 교회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금 이 시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도 교회가 중심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evangelicalfocus.com)

◇브라질, 기독교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과 우려

브라질에서 기독교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여론조사 기관인 Quaest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JesusCopy는 브라질에 하나님의나라보편교회(UCKG)를 세운 마세도(Edir Macedo) 목사보다 인기가 더 높았다. 신

학 팟캐스트 Bibotalk도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브라질 인류학자 스파이어(Juliano Spyer) 박사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더 고립되고 있고, 가수이자 목사인 에이실라(Eyshila)와 미디안 리마(Midian Lima), 가수이자 작곡가인 앤더슨 프레이레(Anderson Freire)와 같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셜미디어 환경의 영적 미성숙과 경제적 충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2021년에 빅터 보나토(Victor Bonato)는 상파울루에서 창고운동(Movimento Galpão)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를 송출했고 14만 5천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지만, 최근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바티스타(Guilherme Batista) 목사의 경우는 기독교 목회자를 위한 리트릿(O Retiro) 이벤트를 티켓당 최대 150달러로 판매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브라질 신학자 시케이라(Gutierrez Siqueira) 박사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신학 훈련과 목회 경험의 부족을 꼽았다. 살아있는도시교회(Cidade Viva Church)의 케이로스(Sérgio Queiroz) 목사는 소비하기 쉽고 입소문 가능성이 높은 동영상은 만드는 일에 매몰되고 있는 기독교 온라인 채널들을 우려했다.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에 대한 신학 교육과 목회적 역량이 강화되고, 온라인 콘텐츠들도 좀 더 신중하게 제작되어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영성공회 대주교, 서안 지구 기독교인 여성 체포 우려 표명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한 기독교인 여성을 체포한 후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이 경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 학생단체와 연관돼 구금된 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비르zeit(Birzeit)에 있는 성베드로 성공회교회(St. Peter's Anglican Church) 신도인 라안 나시르(23)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자택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저스틴 웰비 영국 성공회 대주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시르의 체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녀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웰비 대주교는 X에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려를 느꼈다"라며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라안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점령된 서안지구에 있는 성베드로 성공회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라안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처치타임스(Church Times)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체센(Christopher Chessun) 주교 역시 그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세인트 조지 칼리지'(St. George College)의 리처드 세웰(Richard Sewell) 학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안지구의 비르zeit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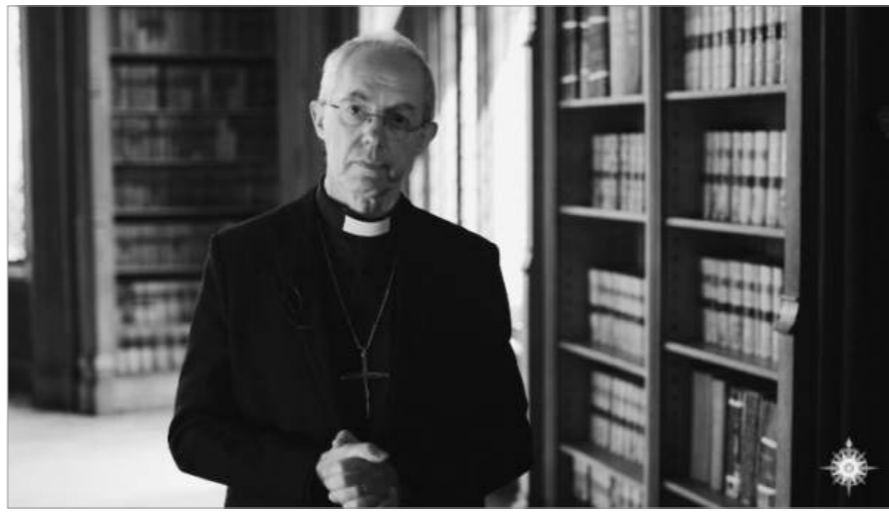
나시르의 시련은 이스라엘군이 오전 4시 그녀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구금하면서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들은 체포 영장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나시르가 이스라엘의 테이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7일까지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고 했다.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따르면, 나시르의 최근 비르zeit 대학교(Birzeit University)에서 영양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라말라 인근의 팔레스타인 NGO에 고용돼 있었다.

그녀는 2021년 20명이 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군에 의해 재판도 없이 몇 달 동안 구금됐으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가족은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그녀가 2020년 이스라엘이 범죄로 규정한 죄과 학생단체인 '진보민주당 학생회(Progressive Democratic Student Pole, PDSP)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당시 구금됐다고 말했다.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에 따르면, PDSP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LO)과 연결돼 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 군 명령에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지난 11일 가자지구 전쟁 중 구호 활동가 여러 명이 사망한 후, 웰비 대주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거듭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해 온 테러단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 대부분 민간인 1,200명이 사망한 이후 공세를 시작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240명 이상을 납치했으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근절하는 것이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3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투원과 생존자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다.

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경 기자

따라 불법 단체로 선언된 바 있다. 여성 10명을 포함한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두 달 만에 석방됐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이자 나시르의 사촌인 탈라 나시르(Tala Nasir)는 "이스라엘은 학생회가 캠퍼스 밖의 조직과 제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지방법원, UMC와 재산 분쟁 중인 대형교회 손 들어줘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재산을 확보하려는 대형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연회의 요청이 거부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2022년 도단 하베스트 교회가 UMC 앨라배마-웨스트 플로리다(AWF)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세속 법원이 교회 분쟁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UMC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레 쿡(Greg Cook) 부판사는 "민사 법원이 교회 재산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교회 장립을 도왔던 하베스트 랄프 시글러(Ralph Sigler)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정말 흥미로웠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연회와 감독, 이사회가 법적 절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철저히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흥미진진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2022년 11월, 하베스트교회는 교단 탈퇴시, 포트너 스트리트 캠퍼스에 대한 통



하베스트 교회. ©YouTube/Harvest Church Dothan

제권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로 UM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TWY에 따르면 이 교회는 소송에서 "UMC는 하베스트 교회가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이 실제로 UMC 교단을 위한 법적 신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라며 "(법원) 금지 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UMC가 하베스트 교회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압수하거나 방해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했다.

AWF 총회는 성명을 통해 "총회의 행동과 의도를 불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지역 기구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두 달 후, 2023년 1월 교회는 UMC 탈퇴를 요청하기로 투표했다. 몇 달 후 휴스턴 카운

티 순회판사인 크리스 리처드슨(Chris Richardson)은 탈퇴교회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UMC의 요청을 거부했다.

2023년 5월, AWF 연회는 특별총회를 열어 토론을 통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193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18개 교회가 연회에 남았고, 13개 교회는 교인 수가 1천명이 넘는다.

AWF 데이비드 그레이브스(David Graves) 감독은 당시 성명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 193개 교회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 애도하며 그들이 최고의 사역을 하길 바란다"라며 "이 교회들 중 다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지역 사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헌신적인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솔츠 독일 총리, 중국에 "공정한 무역관계" 요구... 덩핑·과잉생산 경고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15일 상하이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덩핑과 과잉생산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부과와 기타 무역 관련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솔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통지(同濟)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항상 분명해야 할 한 가지는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과 중국은 무역 문제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솔츠는 "물론 독일 기업들이 아무 제약도 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요구해야 할 것은 정확히 요구해야 한다. 덩핑이나 과잉생산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는 유럽 시장에 넘쳐날 것으로 우려되는 값싼 중국 전기자동차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

세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솔츠 총리는 이날 학생들에게 "국경이 강압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안 된다. 또 이웃국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솔츠 총리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세진 기자

프랑스 마크롱 "보안 위협 크면 센강 올림픽 개막식 경기장 내로 옮길 수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보안 위협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센강에서 계획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스타드 드 프랑스로 옮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수백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6km의 파레이드에서 선수들을 태운 보

트와 센 강변 제방에서 이를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이 예외적인 개막식에 대한 보안 우려가 특히 높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BFM-TV와 RMC와의 인터뷰에서 야외 행사의 보안을 위해 프랑스의 법 집행요원들이 예외적인 수준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 분석에 따라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플랜 B'와 '플랜 C'가 있다"고 덧붙였다.

7월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사상 처음으로 경기장 밖인 센 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 1만5000명의 선수들이 센 강에서 보트를 타고 파리 중심부를 행진하게 된다.

마크롱은 보안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센 강에서 열리는 파레이드 일정을 단축하고, 보다 전통적인 개막식 행사를 위해 "스타드 드 프랑스로 개막식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세진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 경 도 시 민 도 활 동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UL M 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윤석열 대통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 정부 정책 보완하겠다”

총선 패배 인정하며 협치 의지 내비쳐...
“국민께 실제 변화 못 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4·1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는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부동산, 주식투자, 경제회복 등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과 전셋집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이들의 불안감, 주식 투자가 어려운 서민의 처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은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 비취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단된 민생토론회도 재개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현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차원의 대비 태세 확립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총선 패배에 따른 대국민 사과나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방안 제시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추가 행보가 주목된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원내 대권주자 공백’ 허술한 대권구도

이재명 대표 외 대권주자 원외...당권 연임 가능성에 촉각

4·10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원내에 입성한 인사 중 이재명 대표 외에 주요 대권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내 대권구도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모두 원외 인사로 남게 되면서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건전한 경쟁구도가 약화되면서 야권과의 대권경쟁에

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표 측에서는 당 대표직 연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연임 찬성 기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후에는 야당 대권주자와 맞대결하게 되는 만큼, 이 대표의 당권 장기점권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야권 주자들은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김전 총리와 임 전 실장, 이 전 사무총장 등은 이번 선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이들이 원내 입성을 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정당대회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박용국 기자

국힘, 실무형 비상대책위 구성... 차기 전당대회 준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 비대위 구성, 이후 새 원내대표에 인계 예정

4·10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5월 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비대위 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여야 대립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가 당분간 비대위를 맡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실무형 비대위 때문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 전당대회를 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김정은, ‘홀로서기’ 강화를 위한 선대 업적 탈피 시도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상화 용어 사용을 자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홀로서기’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4.15절로 부르는 등 선대 지도자들에 대한 과도한 신비화 표현 대신 낱자 표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생일 ‘광명성절’ 역시 2월 18일 이후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공감을 잃을 수 있는 비현실적 신비화를 지양하고, 사회주의 정상국가 추세에 맞춰 자신을 부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은 장군 만세’ 등 김 위원장 이상화 문구가 등장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평양 시민들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왼쪽)과 김정일 동상을 참배하는 모습. ©영상 캡처

했다. 대남전략에서도 선대의 통일 원칙을 벗어난 ‘2국가론’을 내세웠다. 북한 전문가들은 “선대 유훈을 어기는 건 이례적 행보”라며 “김 위원장의 권력 기반 구축과 정책 노선 독자화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박용국 기자

정부,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사진)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은혜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클리어파스 에어로솔 의약외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전공의 절반 “조건부로 복귀 의사 있다”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 의료행위 면책 등 전제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욱하다 씨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15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 씨는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군복무 기간 현실화 ▲고된 분야 처우 개선 ▲의료사고 면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공의는 “전공의 않으면 18개월, 전공의 마치거나 중단하면 38개월 복무”라며 군복무 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제한” 등 선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수련 완전 포기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의사-환자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전공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류 씨는 밝혔다.



류욱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AI 교과서 도입, 수업 혁신 전인할까

입시 환경 변화는 ‘과제’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제고에 나서면서 수업 혁신을 통한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디지털 기술의 교육 접목에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입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3년간 3818억원을 투입해 교사 연수, 디지털 튜터 배치, 학교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현장 교원단체와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사 양성은 가야 할 길”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입 일반도의 고교 교육 환경에서는 AI 교과서

가 입시 보조 수단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입시제도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업 방식과 대입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 변화를 위해서는 상대평가 등 기존 평가 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교육부가 AI 교과서 시제품이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이미 유사한 사교육 프로그램이 상용화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시 환경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교육을 내실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내래 기자

반감기 앞두고 비트코인 주춤... 김치프리미엄 10% 육박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감기(halving)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약세가 더해지면서 김치프리미엄도 10%에 육박했다. 16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224% 하락한 9600만9700만 원대를 기록 중이다. 해외 거래소 가격도

3.5% 내린 6만3400달러대다. 이더리움 역시 국내에서는 보합권인 470만원대를 나타냈고, 해외서는 17% 내린 31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9.74%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과열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횡

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크스 킬렌 10x리서치 책임자는 “채굴자들이 채산성 악화로 50억달러치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어 4-6개월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대로 4년에 한 번씩 발

생하는 일이다. 오는 20일 발생하는 이번 반감기를 계기로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반감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포탐욕지수도 전날 74점에서 65점으로 하락해 시장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이내래 기자

황선홍호, 파리올림픽서 10회 연속 본선 진출+메달 사냥

12년만의 메달 향한 도전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오는 17일(한국시간)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첫 관문에 도전한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UAE전을 시작으로 사상 첫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편, 2012년 런던대회 이후 12년 만에 메달 획득을 노린다.



황선홍 감독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모습. ©뉴스시스

서 UAE와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 대회에서 최소 3위에 오르면 파리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짓는다.

U-23 아시안컵은 2년마다 열리는 데 올림픽과 겹칠 경우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다. 아시아에 배정된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 3.5장을 두고 열전이 예상된다.

황 감독은 “반드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권을 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다만 해외파 및 부상 인원 등의 변수가 걸림돌이다.

본선에 진출하면 12년 만의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12년 런던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 축구는 세계 강호들과 메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파리행 티켓을 따내면 C조 혹은 D조에 배정된다. C조에는 스페인, 이집트, D조에는 파라과이 등이 있어 쉽지 않은 행로가 예상된다.

한편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는 7월 26일 공식 개막 하루 전인 25일부터 프랑스 7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이내래 기자

이란 “역내 긴장 원치 않아”... 이스라엘 재보복에 확전 경계



이란이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가한 로켓 공격과 관련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결정한 가운데, 이란 측은 추가 긴장 고조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나세르 카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은 역내 긴장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합법적 방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이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측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 같은 입장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이 보복을 결정한 만큼 사태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은 확전 우려로 이란 재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대권 가도에 영향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뉴욕법원서 배심원 선정 절차 진행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지켜봤다.

후안 머천 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임박을 의혹 관련 정부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을 주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막바지 성인영화 배우와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가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34개)를 받고 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 박해이자 미국에 대

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측은 머천 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공격 발언을 해 3000달러의 벌금을 내려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은 주로 배심원단 구성 절차가 진행됐다. 96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12명을 선발하기 위해 개별 면접이 이뤄졌다. 머천 판사는 재판이 6주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일축해왔다.

홍은혜 기자

2024 녹색·에너지 대賞

REVOTECH
REVOLUTIONARY TECHNOLOGY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

우크라이나 성직자, 러시아군에 체포돼 징역 12년 위기

약 1년 전 러시아 점령군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신부가 간첩 혐의로 비밀 재판을 거쳐,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권감시단체 포럼 18(Forum 18)이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내셔널(CDI)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정교회(UOC) 소속인 코스탄틴 막시모프(40) 신부는 러시아 형법 276조에 따라 간첩 혐의로 작년에 기소되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검찰청은 3월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 18에 따르면, 검찰청은 막시모프 신부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시 및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항공 방어 기술 장비의 배치 좌표와 관련된 정보를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에 전달하기 위

해 인터넷 메시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막시모프 신부는 체포 직전까지 자포리자주의 토크마크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승천 교회(Church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를 섬겼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5월, 총가르 마을에서 이 신부를 멈춰 세운 뒤 체포했다. 당시에 그는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국경선을 지나고 있었다. 신부의 안전 상황은 체포된 후 재판 발표 이전까지 10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자포리자의 러시아쪽 행정 수반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막시모프 신부의 유죄를 주장했다. 로고프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공범이 키이우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기밀 데이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정교회(OCU) 본부인 성 미하일 황금돔 수도원. ©위키피디아

를 전송하다가 적발되었다"라며 "정보 유출은 러시아와 자포리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포럼 18에 따르면, 점령 지역에서 점령

국은 자국의 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1907년 10월 18일 헤이그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승인한 점령법(laws of occupation)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 43조는 "합법적 권력의 권한이 점령자에게 이양될 때, 그 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절대적인 방해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럼 18은 러시아 당국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신부와 관련된 재판일과 관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지 못했다. 자포리자 지역 검찰청의 한 관리자는 포럼 18에 재판일, 담당 검사 및 판사의 이름, 막시모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청에 따르면, 법원 심리는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에 위치한 러시아 자포

리자 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반면, 자포리자 러시아 점령지 변호사협회 회장인 엘레나 사포발로바는 실제 법원 장소가 심페로폴의 크림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크림 대법원 웹사이트에는 재판이 공지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정교회의 또 다른 성직자인 블라디미르 사비츠키 신부는 막시모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며, 비밀 법원 재판 소식을 "깜짝하다"고 전했다. 사비츠키 신부는 러시아정교회에 베르단스크 교구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럼 18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러시아인들은 나에게도 이런 협박을 했다"며 "만일 그들이 나를 추방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와 함께 감옥에 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진 김 기자

‘IS에 충성맹세’ 미국 남성, 교회 테러 계획 발각돼 체포

외국 테러 조직에 지원 시도도

미국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18세의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 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고 교회에 자살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은 지난 6일 연방 당국에 적발되어 좌절되었고, 그는 외국 테러 조직에 지원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48쪽 분량의 고소장에 따르면, 알렉산더 스콧 머큐리오는 기독교인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후, 지난 7월 라마단이 끝나기 전인 주일에 폭발물과 칼,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여 인근에 있는 쿠퍼 달렌(Coeur d'Alene) 교회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고소장은 "머큐리오는 2024년 4월 7일 교회를 공격할 세웠으며, 이 날짜는



알렉산더 스콧 머큐리오는 IS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공격하기 위해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날짜"라며 "그 날짜가 다가오자, 머큐리오는 아버지를 수감으로 제압하여 무력화한 뒤, 그의 총기를 훔쳐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낼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한 FBI 합동 테러 대책반

수사관들은 머큐리오는 이번 공격을 계획하면서 부탄 통과 금속 파이프 등의 물품들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머큐리오는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IS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면서 죽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바야(bayah)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그가 교회 테러를 실행하기 전에 개입해 지난 6일에 그를 체포했다.

메리 칼렌드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IS의 이름으로 아이다호 주 쿠퍼 달렌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칼렌드는 "FBI의 수사 노력 덕분에 피고인은 실행하기도 전에 구금되었고, 현재 그는 IS의 테러와 폭력 임무를 지원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며 "법

무부는 미국의 국민과 이익에 반하는 테러 행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저지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 FBI 소속인 쇼니 신하 특수요원은 이 사건이 시민들이 스스로 급진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자기 급진화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테러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FBI의 최우선 과제이며,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FBI나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머큐리오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유진 김 기자

美연합감리교회, 총회 앞두고 동성애 지지 목회자 모임 예고

교단 내 동성애 규정 변경 시도 지속될 전망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를 앞두고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 변화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목회자 모임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UMC 쿼어 목회자 간부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일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 UMC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UMC 총회에 참석할 목회자 모임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UMC 장정은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진보 성향 목회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왔다.

UMC 총감독회 회장 토마스 비커튼 감독은 이번 총회에서도 장정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간부회 자체가 장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단체 종교민주주의연구소 마크 톨리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UMC가 간부회의 의제를 완전히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수십 년간 UMC 내에서는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7,500여 개 교회가 UMC를 탈퇴했고, 보수 출판사 굿뉴스도 교단 이탈을 준비 중이다.

홍은혜 기자



2019년 2월 25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총회 UMC 특별 세션 도중 LGBT 지지자들이 참관인 구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UMC

독일, 14세 이상 성별 자기결정권 법제화

남녀 외 '다양' '무기재' 성별도 선택 가능

독일 연방의회가 만 14세 이상 국민에게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을 제

정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가결된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독일 국민은 남성, 여성, 다양성(diverse), 무기재(keine Angabe) 등 4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명도 동일한 절차

로 가능해진다.

14세 미만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1년 후에 이뤄진다. 기존 성전환자 법은 두 차례 정신감정과 법원 결정이 필요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폐기됐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이전 법이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여러 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독일은 지난해 스페인, 스코틀랜드에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반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홍은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뱅크신사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가서 제자 삼으라!



연회의 위스컨신연회 일을 20여년 보다가 이번에 내려놓았다. 돌아보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있었는지 연회 때마다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며 인천공항에 다녀왔었다. 한 번은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미국 위스컨신에서 오신 네 분의 미국대표들을 모시고 연회장으로 오는데, 그들이 의외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에 내릴 때 보니 녹색이 너무 없더라는 말이었다. 푸른 나무와 풀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계절이 풀이 나지 않는 때문가, 하는 것이었다. 겨울이 지나 풀이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으나, 새삼 우리 환경을 돌아보니 미국에 비하여 나무와 풀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주위에 녹색의 풀과 나무가 자라도록 좀 더 힘쓰면 좋겠다.

우리교회는 부활절을 지나 전도대상자를 작성하고 집중전도하는 기간에 들어 서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기화있는 대로 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이번 전도초청주일에 100명의 영혼을 구원해내려 한다. 이 특별한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들이 교회로 나온다면 일생일대의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교회로 나와 등록하면 종교를 정하는 일인데, 종교란 '마루 중' 자에 '가르칠 교' 자를 써서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종교를 정하면 삶의 모든 내용과 생각이 그 종교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새로워진다. 복음을 전해서 그 분이 자기 종교를 가지게 되면 엄청난 선물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봄에 나무도 심고, 복음도 심는다면 이 나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다.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이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위대한 일은 이때 일어났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실 때 말씀대로 나서서 세상으로 간 것이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취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려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한 말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 속에서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풍경이 아름답다. 성지에서 가장 녹색이 많은 지역이다. 레바논 산맥에서 오는 습기를 여러 산이 받아 이슬, 눈, 샘, 강들이 모여 갈릴리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 디베라의 서쪽에는 화산작용에 의한 중산간지대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그것이 뿔이난 현무암의 화산체는 갈릴리의 대지와 계곡과 평야의 흙에 쌓여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이것은 풍부한 물과 어우러져 비옥한 땅을 이루었다.

그 땅에 경작되는 밀, 보리, 올리브, 포도의 수확이 풍성했고, 구멍지의 풍부한 목초를 이용한 목축도 발달했으며, 갈릴리 바다 주변의 어업도 발달했다. 갈릴리 인근에는 수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만한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 가버나움은 어촌이었다. 정비된 도로 는 국제 무역로로 활용되었고, 여기서 징수되는 통행세는 헤롯 시대 큰 재원의 하나였다. 그러나 비옥한 토지의 주인은 권세가들과 부자들이었으며, 갈릴리의 사람들은 뼈 빠지라 농사지으면서도 늘 가난을 면치 못하는 소작농에 불과했다.

갈릴리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미리부터 머물던 가나안 토착민도 같이 섞여살았다. 그 후에 북쪽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앗수르의 왕 디글랏발레셀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정복하고 주민을 사로잡아 간 것이 기원전 732년이었다.

그후 약 6세기동안 이 지방은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에

정복되었다. 포로잡혀간 것이 여러 번, 외국인이 들어와 산 것도 또한 여러 번, 그러는 동안 혼합인종이 생겨났고 혼합문화가 들어와 버렸다. 그때부터 전쟁과 포로당한 것도 역올한데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된다.

주목하자!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보다 갈릴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땅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지 잘 아셨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그 땅으로 제자들을 가라 보내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볼 곳,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곳은 바로 버려진 땅, 고난의 자리, 소외당한 곳, 문제 많은 갈릴리였음을 기억하자! 마른 땅, 문제없는 편안한 곳만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신도 사실 갈릴리로 가라는 정신에서 연결되는 것이다. 선교사나 한번 해볼까, 외국 여행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낭만적인 선교사의 삶, 이런 것은 제자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갈릴리로 가서 함께 고생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고난받고 소외되며 죽을 위험까지 겪는 것, 그러면서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스타일이다.

중요한 점은 갈릴리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꼭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제 많은 곳, 고난이 있는 곳에 찾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신다. 바로 삼척시장으로, 정라진, 교동으로, 사지, 성내동으로, 갈천동, 당저리로, 문제 많은 우리 생활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대로 살라 명령하신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소외의 현상인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바로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제자란 스승의 비전과 정신을 흠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스승 되신 예수, 그분의 비전과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제자 삼는 과정은 다섯 단계가 있다. 첫째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제자 삼는 일은 먼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치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역할과 사역들이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비즈니스에서 선교하기,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

에 확장되도록 하기 정부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예술 영역에서 주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 든든히 서도록 하기, 미디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기 등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예배를 이끄는 자들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질서로 이끄는 사람들은 다 제자 삼는 역할에 힘쓰는 종들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사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정치가로 세상 변화의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비나 지원비로, 또는 지속적인 기도와 동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 시절에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을 느껴서, 어렵지만 해외 선교사로 나가 평생을 고생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오후에 전도세미나 시간에 맞춰 말씀을 전할 저의 처 조카 가족도 아르헨티나에서 우범지역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역할들을 찾아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합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절한 사역을 발견했다면, 그 사역에 오늘부터 여기에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참하는 제자들끼리 사이의 네트워크와 협력이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뜻을 힘 있게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막내가고 3배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갑자기 물어보는 것이었다. 고3 아이인지만 또 대학 진학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 있나 하여 "왜 그래?"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나는 일 년 동안 노력해서 좋은 대학 성약과에 합격할 거야" 하는 거였다. "아, 그거 좋지?"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유학을 갈 거야." "응, 그래" 내 목소리가 좀 작아졌다.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이가 영동한 얘기를 했다. "유학을 가서는 음악을 계속 공부하지 않고 디자인을 공부할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 나 디자인 좋아한다고." "응" 내 목소리가

에 확장되도록 하기 정부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예술 영역에서 주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 든든히 서도록 하기, 미디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기 등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예배를 이끄는 자들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질서로 이끄는 사람들은 다 제자 삼는 역할에 힘쓰는 종들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사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정치가로 세상 변화의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비나 지원비로, 또는 지속적인 기도와 동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 시절에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을 느껴서, 어렵지만 해외 선교사로 나가 평생을 고생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오후에 전도세미나 시간에 맞춰 말씀을 전할 저의 처 조카 가족도 아르헨티나에서 우범지역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역할들을 찾아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합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절한 사역을 발견했다면, 그 사역에 오늘부터 여기에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참하는 제자들끼리 사이의 네트워크와 협력이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뜻을 힘 있게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막내가고 3배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갑자기 물어보는 것이었다. 고3 아이인지만 또 대학 진학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 있나 하여 "왜 그래?"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나는 일 년 동안 노력해서 좋은 대학 성약과에 합격할 거야" 하는 거였다. "아, 그거 좋지?"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유학을 갈 거야." "응, 그래" 내 목소리가 좀 작아졌다.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이가 영동한 얘기를 했다. "유학을 가서는 음악을 계속 공부하지 않고 디자인을 공부할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 나 디자인 좋아한다고." "응" 내 목소리가

소리가 의외라는 듯이 터져 나왔다. 계속 우리 아이가 속사포로 쏘아댔다. "나 미술도 잘 한단 말야. 디자인 공부하고 외사는 무대복, 예술의상 제작 샵을 차려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사실 대에 부자가 될 거야!" "그 후에는?" 내가 급하게 물어보았다. "남편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서 선교 하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거야!" 나는 몇 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놀랐다. 자에게 가진 성약이라는 재능을 잘 발전시키며 어느 시점에서 출연이 떠날 계획을 가진다는 점과 돈을 일찍 많이 벌겠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점이었다. 나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냥 슬쩍 웃고 넘겼지만, 나는 아이와 얘기고 나서 뒤에서 혼자 한참 웃었다.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는다.

싱가폴에서 가까운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몇 년 사이에 두 번 간 적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던 그 섬이 아니었다. 우선 경제발전이 대단했고, 기독교적 영향이 매우 크게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전도를 많이 받은 표가 났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슬람국가인 그 나라에 전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전해야 하고 일해야 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처음에는 썩이 나서 자라다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처럼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오오늘의 삼척, 이 '썩물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세속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쩌면 21세기 지금의 삼척이 갈릴리보다, 바탐섬보다 더 딱딱하고 어려운 땅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밝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가라! 다음은 제자를 삼으라! 관계형성-복음 전파-영양-가르침-제자 만들기, 여러분의 삶에 이 다섯 단계 제자로서의 프로그램이 살아있어 날마다 땅을 갈아엎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발열

인후통

근육통

몸살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골절), 타박상, 골절상, 염좌통(염좌통), 필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용법 및 동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수신자 부담)

깨어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오대양(五大洋) 육대주(六大洲) 가운데 누구든지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부 색깔이 새까만 흑인들을 생각하고, TV에 자주 나오는 강말라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과 눈곱이 파리들이 대어섯 마리씩 달라붙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많은 부족들이 살면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 군인

들이 독재 정권을 세워 수십 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뉴욕 타임스>는 '세계의 아프리카화(The World Is Becoming More African)'라는 특집 기사를 썼는데, 2050년이 되면 지구인 4명 중 한 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1950년, 아프리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였으나 2050년에는 두 배로 증가해, 25억 명에 이르고, 그 중 1/3은 15~24살의 젊은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인의 평균 연령은 19세로 인도의 28세, 중국과 미국의 38세보다 훨씬 젊습니다. 아프리카는 중국, 유럽, 인도,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에 54개국이 공존하는 대륙입니다.

지금까지 굶주림과 빈곤의 미개한 대륙으로 여겨졌던 아프리카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음악, 영화, 패션, 하이테크 등 모든 분야에서 문명사회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균 5~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낳고, 2000년 이후, 유아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교육 수준도 44%가 고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과 인도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력을 보유하게 되며, 2040년대에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는 다섯 명 중 두 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예측합니다.

정치력도 신장 되어 2023년 9월에 아프리카 연합은 G20 정상회담에 가입하여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널려 있는 광대한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동맹국들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의 실업률이 35%에 달하고, 유럽과 중동으로 밀입국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중남미 정글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자들은 인류의 당면한 문제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 아프리카 청년들의 실업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초기 교회 시절 북아프리카에서 터툴리안, 씨푸리안, 어거스틴 등의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왔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린인 내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행 8:26-40)

우리는 흑인 민권 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1963년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을 기억합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꿈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깔보지만, 앞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앞에 우람한 모습을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검은 대륙이라고 무시하고, 하사(下視)하지만, 킹 목사가 말한 대로, 피부 색깔이 아니고, 인격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사람을 피부 색깔이 아니고, 인격과 신앙으로 평가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롬.

감정 vs 영성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한 십자가 군병과 힘을 합쳐 사단의 세계를 향해 포문을 활짝 열고 영적전쟁을 하겠다는 헌신으로 우리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장렬한 영적전쟁은 고사하고 매일 교회 안팎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앞친데 뒤편 격으로 이런 문제들은 한방의 묘수로 해결되지 않는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간구에 지쳐버릴 때면 이것이 목회자가 싶은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다. 더군다나 그 문제가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온다면 목회의 본질에 대한 회의는 견줄 수 없다.

빛세바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면 종종 우리는 다윗의 삶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가는 쉽사리 볼 수 없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전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참담한 사건을 목도했다(삼상 30:1-6).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거기에 있던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울 거려도 울지 못" 소리 내어 울었던 다윗의 전사들은 좌절감에 못 이겨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6절 상반절). 다윗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생각지 않았던 배신(7)을 당하였다. 다윗도 피해자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리더로서 다윗이 가졌던 탁월함은 6절 하반절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 감정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위기에 감정의 기복으로 흔들리는 대신 영성으로 견고해진 다윗

누가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했는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생각이 감정에 작용하는 네트워크보다 감정이 생각에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3배 더 많다"는 임상결과를 자신의 복리부에서 조선일부 김수석 기사는 인용했다. 인간은 결과와 같은 대사로 오랜 리사처와 엄격한 저울질에 근거하여 여하지 않는다. 눈에 공작지가 씌어서 하게 된다.

자신의 저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양찬순은 인간의 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말한다. 의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은 항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면서 사람을 부린다. 행복한 삶도 자살도 모두 감정의 작용에 따른 것이다.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기 위해 리더는 다양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질을 다양하게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영성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분노는 중요한 감정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이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리더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닌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요한3서 2절의 번역과 이해



채영삼 교수
백석대학교

기존의 요한3서 2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이러하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못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2절을 원문과 그 문맥에 맞게 새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모든 일에 관해서도 바른 길을 잘 가며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이 바른 길을 잘 가는 것과 같이"

혹자는, 서신의 초두에 나오는 가벼운 인사말을 뭘 그리 심각하게 다루냐고 생각할지 모르다.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은 정확히 해석되고 올바르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벼운 인사말"을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온 세월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거를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아래는 새로운 번역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이다.

(1) 초기교회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나 아우구스티누스는, 2절의 본문을 두고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면적인 보호'가 더 중한해지기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인용했다.

(2) 2절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은 1절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과 같은 맥락이다. 진리를 떠나도 잘 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3) 2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프슈케'는 영혼으로 대표되는 '인간 전체, 생명, 삶'을 가리킨다. 영혼은 천당 가고, 육체는 복을 받는 등의 '삼박자로 나눌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4) 2절에서 '페리 판톤'(모든 일에 관해)을 두고,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보다(프로 판톤)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읽는 독본은, 사본상 외적 증거가 취약하고 문맥에서도 지지받기 어려운 임의적 번역이다.

(5) 신약의 인사말들은, 당시 헬라의 편지의 인사말의 형식과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새롭게 사용했다. 서신마다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내용은 당시 그레코로망의 서신의 통상적인 인사말을 복음 안에서 변형한 것이다. 이 본문 역시, 단순히 재물의 축복과 건강을 비는 통상의 인사말이 아니다.

(6) 2절에서 2회 나오는 '잘되고(개역개정)는 '유오두마이'로서 원래 '곧은길을 잘 걸어간다'는 뜻의 동사인데, 바로 다음 구절인 3-4절에서 마찬가지로 2회나 강조되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페리파테오 동사)'이라는 표현과 뚜렷하게 짝을 이룬다. 진리와 상관없이 '복 받아 잘 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7) 2절에서 '이와 같이(카포스)라는 표현이, 3절의 '이와 같이(카포스)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한다

(8) 2절에서 '강건하기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삼서와 같이 거짓가르침이 문제되는 서신들에서 이 단어는 믿음과 교훈에서 '바르고 온전한'을 의미한다(딤후 1:10, 6:3; 딤후 1:13, 4:3; 딤후 1:9, 2, 8절).

(9) 2절의 번역과 그 의미는, 1-4절의 문맥 안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0) 2절은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팔복(八福)과' 맞닿아 있다.

(11) 오순절 계통의 학자인 H. L. Landrus에 의하면 요한3서 2절을 '물질적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로 해석한 결정적 인물은 미국의 방송 설교가 Oral Roberts 목사(1918-2009)이다. Landrus는 이 본문을 '번영신학'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향사적(Wirkungsgeschichte)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본문 안에는 그런 의미가 희박하지만 후대에 해석자들에 의해 '상황적으로 부가된' 의미들에 근거하는 해석이다.

(12) 동일하게 오순절 계통의 학자들인 J. C. Thomas나 M. Roberts는,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번영을 원하신다는 뜻을 요한3서 2절에 근거시키도록 독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이 본문을 번영신학의 근거구절로 해석하는 대표적 인물인 소위 '공정신학'의 대부(代父)인 로버트 슐러(1926-2015)는, 그가 설립한 수정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한 후 그 예배당은 매각되었고 파산했다.

(14) 요한3서 2절과 같은 인사말 한 구절에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를 논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다. 신약 전체,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신학과 신앙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 출처: 채영삼, '지키심을 입은 교회: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의 이해(161-175p); '코이노니아 성경: 공동서신'(72p)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과 이란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마대(매대) 후손들의 정착지

성경 속, 같은 야벳 자녀들 가운데 형들인 고멜과 마곡이 아라랏 산의 서북쪽을 향한 것과 달리 마대(Madai)의 후손들은 티그리스 강의 북쪽 카스피해 남쪽의 자그로스(Zagros) 산 동쪽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마대족(族)은 페르시아 서북의 험준한 자연 환경과 마대족의 북쪽에 살며 강력한 제국 스키타이를 세운 마곡족의 영향을 받으며 일찍부터 아반의 거친 민족성을 보인다.

야벳의 아들인 이들 마대의 후손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Elam) 후손들과 함께 오늘날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과거 페르시아 지역 즉, 페르시아 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며 맞서고 있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 바로 마대족(族)들이 뿌리를 내린 땅이다.

과거 일본 도쿄의 목욕탕을 들렀다가 한국과 이란 두 나라 국민들만을 겨냥하여 탕 내에서 때를 밀지 말고 제발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 피우지 말라는 경고용 팻말을 본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본식 질서 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볼 때, 한때는 동양의 축구 2대 강국이었던 다혈질 성향의 한국과 이란 두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조금은 무례해 보이고 타국에 와서도 눈치없이 여전히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동이 자기들과는 꽤나 상이하게 느껴졌을 듯하다. 대한민국이 일본 못지않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전(1990년대 초) 이야기다.

◆마대와 페르시아의 병합

이렇게 우리 민족과도 열핏 유사한 면이 있는 마대족은 어떤 역사적 여로를 걸어왔을까?

마대는 고멜이나 마곡의 후손들이 성경 구약 역사와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된 것과 달리 성경 계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바로 마대는 창세기 이후 매대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다시 등장한 다(왕하 17:6; 스 6:2; 예 1장; 사 13:17; 렘 25:25; 단 5:6,8,9장; 행 2:9 등 참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대의 자손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의해 매대(Medes)라 불려졌었다고 말한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도 헬라인들이 이들을 매도이(Mēdōi)라고 불렀다고 했다. 구약에

서 매대가 언급될 때마다, 히브리어로는 매대(Madai, maday)라 쓰여 졌다. 왜냐하면 특수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언어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당연히 페르시아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

하지만 작은 나라였던 매대는 일찌감치 앗수르에 정복당한다.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북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은 매대 땅 여러 고을로 잡혀갔다(왕하 17:6).

그런데 주전 625년 경 매대 사람들은 바벨론과 합세하여 앗수르를 멸망시켰으며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과 매대를 정복한 이후에는 '매대 파사라' 불리는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고레스(Cyrus, 통치 기간 주전 539-530, 바사 제국의 건설자)시대 이후, 매대는 주로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언급되었다.

'매대와 페르시아인의 법'(다니엘 6:8,12,15) 이후에 그들은 서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인들(Persians)로 불려졌다. 즉 그들은 하나의 법에 의해 지배받는 하나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고 1935년 1월 1일 팔레비 왕조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금의 이란(Iran)이라 불렀다. 일부 매대인들은 지금의 인도 지역까지 진출하여 정착하였다.

페르시아의 엘람보다 더 넓은 지역을 품고 있던 매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페르시아와의 병합 이후 지금은 나라없는 인구 최대 민족으로 알려진 쿠르드족의 분포 지역과 매대의 역사 속 영역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대와 쿠르드족의 연관성은 늘 주목을 받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대의 주요 후손 다리오

성경 계시에 등장하는 마대족 계열의 주요 인물에는 다니엘서(5:31-6:1)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 셋 가운데 하나로 세운 인물이다.

이 다리오는 성경 가운데 오직 다니엘서에만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매대 사람 다리오의 후 기 페르시아(바사) 군주인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Darius I Hystaspes, B.C. 522-486)가 아니다.

매대 사람 다리오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수에로(Ahasuerus)였다(단 9:1). 하지만 이 다리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를 예스터 1장 1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로(다리오 1세의 아들인 크셀크세스 Xerxes 1세)와 혼동하면 안 된다. 즉 매대 사람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



고레스의 묘지 ©박진호 박사 제공

로의 후손(아닥사스다 1세나 다리오 2세)들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주전 490년 바사왕 다리오 1세(Darius I)는 전함 600척, 보병 10만, 기병 1만의 대병력으로 그리스 본토에 원정군을 보낸다. 그리고 아티카(Attica) 주의 동쪽 해안에 상륙시켜 마라톤 평야에 포진한다. 이 싸움에서 바사군은 아테네의 밀티아데스(Miltiades) 장군 휘하의 불과 1만의 병사들과 맞서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참패하고 만다. 바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war of Marathon)이다. 이때 페이디피데스(Pheidippides)라는 병사가 약 2일간 240Km를 질주하여 아테네까지와 승리를 알린 후 숨을 거두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바로 이를 기념하여 시작된 것이 마라톤 경기의 시발이다.

아버지 다리오 1세의 복수전을 준비한 바사왕 아하수에로(통치 기간 B.C. 486-464)가 바로 베냐민의 후손 모르드개가 펼쳐준 양육한 유대 고아 처녀 에스터를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에 2:7). 아하수에로는 아버지를 대신한 아테네와의 복수전을 앞두고 벌인 전략 회의 겸 잔치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터를 아내로 맞았던 것이다. 폭이 좁은 아테네인인 살라미스만(灣)에서 11시간 계속된

역사상 유명한 살라미스해전(Battle of Salamis, B.C. 479)에서 참패한 그 왕이다.

◆다리오 왕과 유대인

매대 사람 다리오의 아들 페르시아왕 다리오 1세나 아하수에로보다 시대적으로 더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다. 주전 539년 10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통치 기간 B.C. 539-530)은 그를 바벨론(갈대아)의 매대파사 통치자(단 9:1)로 세웠을 것이다(단 12:1: 5:31; 6:28). 매대 사람 다리오의 바벨론 멸망(B. C. 539) 당시 62세(단 5:31)였으므로 주전 600-601년 경에 태어났다(단 5:31).

성경 구약의 위대한 예언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종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이방 인물은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보다 매대 사람 다리오다.

다리오의 관리들에게 속아 서명날인한 법령으로 인해 신임하던 총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다(단 6:7-18절). 이렇게 유대민족과는 인연이 깊은 왕이었다.

그는 페르시아 체제 가운데 벨사살 왕과 같은 부(副) 통치자였으나 방탕했던 선왕(先王)과는 달랐다. 그는 큰 열의

와 능력을 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으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놀랍게도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 왕(단 6: 25-27)이었다는 점이다.

◆매대-바사(매대-페르시아)의 신제국 이란의 미래는?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이란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현재 전 인구의 98%는 이슬람이다. 국가 공식 명칭도 이란이슬람공화국이다. 이란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근본주의자 호메이니를 따라 오늘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사아파 이슬람 맹주국을 구축한 나라다.

이란은 한때 우리 민족을 먹여살린 한국의 중동 지역 건설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국가였다. 과거 대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일까? 이란은 지금 동서양을 통과하는 교통로에 위치하며 핵보유국으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성경 역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21세기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등장한 이란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어찌되었든 매대-파사는 생각보다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민족임은 부정할 수 없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된 왕이었다(스 1:3). 이사가 선지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 고레스에 대해 두 번이나 예언하고 있다(사 44:21-28; 45:1,5).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하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詔書)도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었고 자기를 명하여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공포하면

서 포로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물질적 도움과 배려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스 1:1-4).

성경은 이것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된 일이라 설명하고 있다(스 1:1). 고레스는 자기 이름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기에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일까?

고레스가 참 된 신앙고백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성경 예언에 놀라고 큰 감동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고레스처럼 성경 계시에 감동하고 다리 오처럼 이란 통치자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오늘날 온 중동의 나라들은 마음 발이 온통 그곳 광야처럼 메마르기만 하다.

과연 언제쯤 성경 역사의 땅 그곳에 참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올까?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유달리 강한 이란은 솔로몬과 다윗처럼 어느 민족보다 시(詩)를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시(詩)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지 시인 솔로몬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고, 찬양 시인이요 음악가인 다윗은 성경 2930명의 실명 인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함께 더불어 중동 변화를 이끌 극적인 신앙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정말 그런 때가 온다면 혹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인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시일까? 아무튼 그런 평화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1.5kg 미만 미숙아, 퇴원 후 생존률 90% 넘어

국립보건연구원, 미숙아 등록 연구 결과 만 3세 뇌성마비 5.1%, 재입원은 21.8%

1.5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의 중환자실 퇴원 후 생존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 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등록아의 기본 특성 및 건강 상태, 장기 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극소저

체중아 1826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추가로 생존 및 사망 여부를 추적한 126명의 정보가 합산돼 총 1952명의 생존율을 분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NICU) 퇴원 시 생존율은 90.1%로 연차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2014년 84.9%보다 5.2%p 향상됐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생존율 89.9%보다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요 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



파보면 3단계 이상의 심각한 뇌실내출혈은 11.3%에서 6%로, 남성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은 8.3%에서 6.8%로, 폐혈증은 21.4%에서 13.2%로 각각 감소했다. 2단계

이상의 과사성 장염 역시 6.2%에서 5.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 출생아와 2019년, 2020년 출생아의 만 1.5세 및 만 3세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비율과 재입원 비율도 각각 감소했다. 만 1.5세의 뇌성마비 진단 비율은 6.2%에서 4.5%로, 재입원 비율은 46.3%에서 36.4%로 줄었다. 만 3세의 경우 진단 비율이 6.1%에서 5.1%로, 재입원 비율은 28%에서 21.8%로 감소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지난 2013년 한국신생아네트워크(KNN)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

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소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치료 기술의 향상을 통해 환아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미숙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서울, '중대시민재해' 막아야... "음식점·약국·산후조리원 취약"

서울연구원, 중대시민재해 시설 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자 35% "제한된 자원" 관리 장애요인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재난 대비 실태를 분석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대표적인 중대시민재해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물은 25만 여개로 나타났다.
원료제조물이 11종 약 24만개, 공중이

용시설이 35종 약 7000개, 공중교통수단이 3종 약 100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료·제조물 분야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약국이 중대시민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취약했다. 약국은 안전 관리 예산이 부족하고 의무 교육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에 취약한 시설은 목욕탕업과 산후조리원 등이었다. 목욕탕업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안전 점검 계획과 수행이 미흡했다. 산후조리원은 안전 예산과 각종 기준과 절차 마련 면에서 빈틈이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민간 분야 중대시민

재해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331개, 원료·제조물 119개 등 모두 4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담당자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응답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관리상 장애 요인을 묻자 '제한된 자원'이라는 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조직 내 관리 전문가 부족'이 23.8%,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이 15.6%였다.
원료·제조물 사업장에서는 '경영진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답이 많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을 묻자 '안전 점검 비용과 교육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관리 방안 지침 배포, 사업주와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 순이었다.
이루리 기자

서울연구원은 향후 안전 관리 면에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비료·농약 판매업, 방향탈취제판매업, 약국, 공연·전시장, 산후조리원, 목욕탕업,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목했다.
서울연구원은 "중대시민재해 대상물 현황과 발생 현황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재난관리실 간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장과 시설물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근거 자료의 구축과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등 가이드라인 배포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및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전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루리 기자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지원'... 18일 2차 모집

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 거주 초·중·고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에게 눈 검진(시력 검사)과 안경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했던 1차 접수에서 신청자가 8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2277명)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규모다. 1차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안경사회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14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신청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서 오는 18일부터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초·중·고등학교 이하(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유효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되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한 안



©서울시 제공

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다음달 3일에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6개월이다. 기존에 신청했던 경우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아이 눈 건강에 대한 양육자의 걱정도 크실 것"이라며 "지난번 모집에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다운 기자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 17~18일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7~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홍보 장터는 오는 20일 장애인 날을 맞아 추진됐다.
장애인 생산품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민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5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80여 개의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행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전국의 8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 1만9000여명을 포함한 장애인 근로자 2만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 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루리 기자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루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선승가게발전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복층 농막주택

왜관 온암 재가노인센터

대구 서재 어린이 수영장

대구 상가 4층건물 리모델링

약목제일교회 리모델링

전원주택

태전동 주택 리모델링

포항 카페 인테리어

대구 신성교회 리모델링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주 예수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소함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흔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 (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 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2024년 4월 복지교회 POWER UP!

교회복지세미나 (무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레위기 21장 17절~21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아름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벼집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일시장소 4월 18일(목), 20(토) 11:00~14:30
안양복지교회 (위치: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61번길 30)

모집인원 요일별 선착순 30명

주제 1. 장애와 관련된 성경 용어 수정 및 이해
1. 교회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강사 **조상원 목사**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The Christian Welfare Campus of Harvest Bible University 학장역임
-주요저서: 교회복지이해, 장애와 관련된 성경용어 수정 및 이해, 다시 읽는 성경(신약편), 교회와 장애인복지

등록 | 홈페이지 등록 www.cws95.net
문의 | 문자등록 010-9643-6356, 점심식사 제공

 **한국교회복지사회**

획기적인 글로벌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진행시: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찬사**
- 우울증해결**

장대수 목사
시흥시흥의 교회 담임장
대전기독교부흥사의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건축의 모든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일스 스텝과 음향기술
- 연무대교회 7000석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령교회/ 호산교회)



인테리어
에스스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고객자가 알 필요, 건축원칙이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시공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개혁은 언제나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원료로 한다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종교개혁 신학: 조직신학 관점의 개요’



개혁은 언제나 현재의 문제점을 전제하고, 기독교 개혁은 언제나 현재지향적이거나 과거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미래를 지향한다.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 루터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는 역사적 신학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가운데 섰던 종교개혁자들의 통일성 있는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계속해서 유익을 끼치는 이유가 있다. 종교개혁은 온건한 모양이든지 급진적인 방식이든지 일반적으로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갖는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이 세운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한다. 이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다섯 솔라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가르친 교리에서 어떻게 이런 개혁의 기본 정신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은 기존의 잘못된 종교 형식과 신념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다양한 성향과 생각의 차이를 가진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신학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책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 조직신학 관점의 개요>이다 (생명의말씀사, 2023). 이 책의 편집자는 여러 중요한 교리를 집필한 매튜 바렛이고, 함께 저술에 참여한 학자 중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채드 반 디스훈, 필립 라이큰, 데이비드 웰스, 마이클 리브스, 칼 트루먼 등이 있다(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한국인 학자, 김

은진도 참여했다).

종교개혁의 주된 관심은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었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면죄부나 성례 등으로 구원에 일조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타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기 때문이고, 교회를 교회의 머리로서 두려는 로마 가톨릭에 맞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두기 위해 분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이 두 가지 주제에 모든 생애를 바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조직신학 관점’에서 본 이 책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독자에게 보여준다.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던 신학을 성경론, 삼위일체론, 신론, 구원론(예정과 선택, 칭의, 성화, 견인, 확신), 인간론, 기독교(속성과 사역), 성령론, 교회론, 성례론(세례와 성찬), 종말론 등으로 세분화하여 루터 이전의 상황,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 초빙글리아와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의 교리, 제세례파, 영국 국교회 등의 신학을 비교-대조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통일성 있게 개혁하려고 했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개혁에 관심을 거의 두지 않거나,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마치 무한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숭배하기도 한다. 둘 다 잘못된 접근법이다. 종교개혁은 항상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성경에서 멀어진 교리와 실천을 여전히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빚어낸 비성경적 나아가 반성경적 사고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 플라시오펀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으킨 개혁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속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성공했는지, 그 방식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이상처럼 떠받들지 말아야 한다. 매튜 바렛이 편집한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교리는 항상 완벽하게 일치되지 못했다. 그 말은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신학>을 통하여 독자는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통적으로 행한 형식 그대로가 성경적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는 종교개혁자들처럼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의심하고 무너뜨리려는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믿고 있는 것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개인에게 위안과 격려가 된다면 종교 생활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는 곧 우리가 전수해야 할 교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굳건히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도 있고, 무너진 교회를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 모든 교리가 교회를 서거나 무너지게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모든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고 올바른 진리를 고수하려는 열심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조를 만들어 서로의 믿음을 일치시키고 교리문답을 통해 모든 성도가 견고하고 바른 교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일에 헌신했다. 오늘날 신조는 역할이 불분명하고 교리문답은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만 강조하는 추세다. 점점 교리적으로 빈약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확실한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적인지 철저히 연구하고 점검해야 한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 신학>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울면 안 되지. 힘들어도 웃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울 자격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울라고 권합니다.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삶에 힘든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제 삶은 끝나지 않았고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저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장재기 『따라 하는 기도 5: 고난』



MZ세대를 향한 말이 참 많다. 하물며 요즘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MZ세대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느낄 만큼 너도나도 MZ세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중에도 MZ세대를 겨냥해서 많은 책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손꼽히는 화두 중 하나가 MZ세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와 역사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MZ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 속에도 깊이 침투해 탈권위 현상과 함께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현상을 만들게 됐다. 오늘날 MZ세대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 권위자가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훈종하기보다 ‘왜요?’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가끔은 비상사적이고 기준이 없는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에제키엘 『MZ세대 사역자가 쓴 MZ세대와 한국교회』



요즘은 더없이 고독했다. 그때부터 얘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영원하고도 같은 시간에 요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아뭏든 속을 걸으며 별을 바라보았다. 요즘이 기도를 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서성인다. 한순간 고개를 가로 젓다가 주먹을 흔든다. 이것은 그가 그러던 모습이 아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로운 찬송가나 부활절 주일 또는 영성 훈련을 통해 오시리라고 기대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이나 교회의 식탁 교제 중에 또는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했다. 이혼이나 죽음, 소송, 감옥을 통해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잘 역사하시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주의 집중이 가장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맥스 루케이도 『예수님과 같이 걷기』

소명에 헌신하는 삶

신간 '좋은 그리스도인'

성장과 기복, 상향성에 기울어져 있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은 하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가야 할 소명이 있음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 이 소명에 헌신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그리스도의 길, 신자의 길임을 밝히고 있다.

신간

엄마, 이젠 울지마

OBS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의사 양혁제가 전국 20지로 의료봉사를 다닌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저자 조천업 목사(화평교회 담임)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에 가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소명에 함께 주셨으며, 이 소명에 응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축복된 기회에 감사하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에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복음은 소명을 교집합으로 품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소명도 함께 받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소명에 헌신하며 사는 여정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이에서 아비에게까지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화의 삶을 소명으로 주셨다”며 “오늘 기복 설교는 인간의 탐욕에 불을 붙였고, 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가야 할 소명에는 무심하게 되었다. 오직 관심은 ‘잘되는 나이다. 좋아질 거야, 잘될 거야’라는 긍정주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소원이나 세상의 빛 되기보다 ‘잘되는 나’를 추구하고 있다. 진리의 다른 길은 하나님과 원수 된 길이다. 그래서 많 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 분별하며 그 진리를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책 '엄마, 이젠 울지마(이정서제)의 저자 양혁제는 OBS 방송 제작진, 배우 강성연, 우희진과 함께 지난 2년간 전국 20지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80여 명을 진료하고 무료로 수술했다.

저자는 척추관협착증과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나섰다. 그 사연들 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뽑아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상마오로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 정형외과 외래교수이자 강남 메드레क्स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본문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훼방했던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야 할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4절입니다. 공중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중히 풍성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지, 그러나 죄인을 향해 공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공중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공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중히 여김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 큰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허물로 죄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래서 아담과 같이 범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죄가 왕 노릇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운명론적으로 아담 아래서 아담의 범죄 한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세력 가운데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테에서부터 죄의 운명을 지고 태어나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미 죄 아래 숙명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처럼 어찌할 수 없는 비극적인 죄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아담입니다. 새 시대 인류의 대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악 된 죽어 마땅할 진노의 심판을 받아

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우리 모든 죄악의 심판을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나는 세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은혜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영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피눈물 나는 세계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희생의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들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흑인영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는가? 저 그때 없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하며 받아들일 때 곧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죽고 다시 산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십니다. 망

해도 일으키십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합니다.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안 되어도 좋은 것이고 망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되게 하시고 망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죽어도 살리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는 결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6절을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실 뿐 아니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또한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공중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에게 주어 진 넘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구원 받은 자의 종국은 영화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 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소망의 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seogwangchurch.org

바이블칼럼

부활 이후 50일의 여정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holy spirit

오순절, 성령강림을 향한 50일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행 11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1: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

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성령을 갈망하는 것이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라고 하셨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해주시기를 진지하게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죄악으로 치달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의로운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

라 할지라도, 아무런 공로와 자적이 없다 할지라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때로는 서서히 인격의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방언을하는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뜻

밖의 때와 장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사모하고 깊이 갈망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쉴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사 64:1-2)라고 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는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열려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YEFK 제공

광동 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중량용 소진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생명의 진한 정성, 광동 쌍화진 30회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김성광 칼럼 진짜 싸움

진정한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싸움과 분쟁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바로 악한 영인 마귀의 계략이다.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악한 영은 개인을 좌악에 빠지게 만든다. 타락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은 사회를 좌악에 빠지게 만든다. 사회의 불의, 부정부패,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과 마찰,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악한 계

략으로 일어난다. 이런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진짜 싸움이다. 이런 악한 영과의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량 더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20대 직장인들도 회사 밖에서는 활기찬데 출근만 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직장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직장인 57%가 직장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인간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달음질해도 피곤하지 않다. 인생을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인생의 성공은 위로부터 부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다. 성공도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은 더 확실히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둘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싸움에서는 적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 악을 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 마귀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게 하고, 남을 해치게 하고, 살인까지 하게 만든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귀는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든다. 부부간에 의심이 쌓여서 의처증, 의부증까지 생기게 한다.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어지고, 하나

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한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셋째, 기도하라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승패가 좌우된다.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E. M. 바운즈(Edward Mckendree Bounds; 1835-1913)는 "기도는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다. 축복 받을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성공할 사

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창대케 될 사람이 창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질병도 고침 받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 걱정이 없어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인격도 성숙해진다. 기도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가정과 개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큰 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1천만 기독교 신자가 잠자고 있는 영에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김성광 목사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59)



권혁승 박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아니다"(시 119:105)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신다. 이것은 말씀의 두 차원을 지적한다. 곧 말씀의 개별성과 말씀의 공동체성이다. '내 발에 등'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내 길에 빛'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 발의 등에서' '발'은 히브리어 '레겔'인데,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쌍수형인 '라글라임'이 사용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단수형이 온 것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르'는 '등'이나 '등잔'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일곱 촛대의 등잔대 '메노라'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등'은 사람이 직접 불을 붙여야 하고 또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용도를 강조한 것이다.

'내 길에 빛'에서 '길'은 히브리어로 '네티바'인데,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서 파생된 것으로, 다니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어진 전용도로를 가리킨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성이 강조된 길이다.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을 의미한다(창 1:3). 이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한 개인을 위한 빛이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개별성의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 홀로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전부 아니다. 그 길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남자와 여자이며(창 2:7),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공존하는 공동체적 인간이다(창 18).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전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네티바'를 위해서



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발에 등'은 시작점이다. 우리는 그 시작을 계기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듭남이다. 그런 신앙의 개별성은 뿌리와 같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목적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법이다.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울분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잠 29:18) 여기에서의 '목사'는 히브리어로 '하손'인데, '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라아와'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영안으로 보는 '비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였다. 백성의 방자함을 바로잡는 길은 '울분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울분'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하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살리면서 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개개인의 발을 비추는 작은 등불로

출발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걷는 큰 길 '네티바'를 비추어 주는 큰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큰 길을 비추어주는 큰 빛이 되신다는 점을 놓쳐버리면, 내 발의 등은 잠깐의 의미를 상실한 말씀이 될 수 있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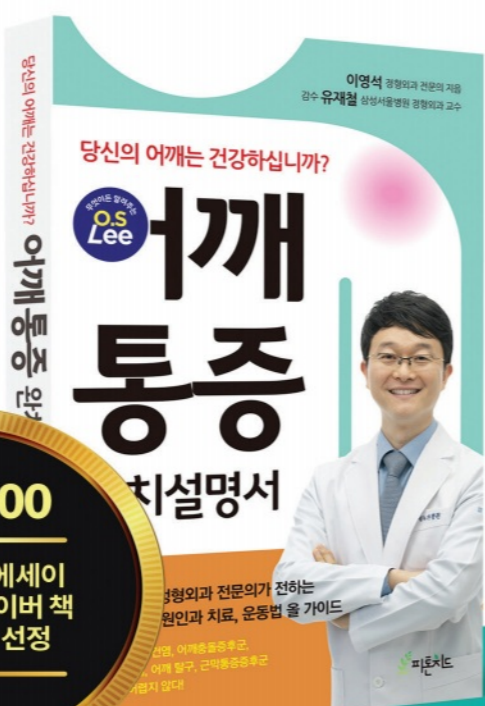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창세기 12:2

기독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배운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사수를 늘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제자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수(傳受)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주변에 God fearer들이 있어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 문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인이 되는 것은 곧 손해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제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문턱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 손해나는 일은커녕, 오히려 이익이 되는 일이 많기에 누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섞여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제자들의 영적 감화력이 세상을 감화시킬 능력이 되지 못하고, 단지 교회의 숫자 불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인원 감소를 두려워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초대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무섭도록 질서를 지켰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았고, 속임수가 작동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신 된 신자만 제자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박해가 풀리면서 상업화된 개념이 교회에 흘러들어와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뼈아픈 경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적셔진 세속은 쉽게 털어낼 수가 없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교회는 죄에 대

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고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신앙, 부정직, 비웃음, 불경건, 무능력과 무기력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을 안 지켜도, 예배 시간에 짓을 하고 있어도, 성실하게 집사의 직분과 제직의 사명을 다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교회에

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 가보면 기본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 저 교회는 정말 기본이 잘되어 있다는 부러움을 사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속삭여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향유옥합

진리와 기도



부흥을 촉진시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수단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사용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기도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만한 것이 달리 없다.

죄인이 회개하면, 그 정서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사(赦)하시기에 적절하게 된다.

그런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을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그래서 죄인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사하심을 타당하게 만드는 것은 죄인의 회개이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

신마루서신 제공

교회오빠

내게 맡겨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다면 금방 떠올라지는 것이 허들 경기입니다.

허들이라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뛰어넘으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 같기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허들경기는 똑같은 장애물들을 동시에 출발하여 넘어가는 게임인 반면에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서로 크거나 정도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보이는 허들경기마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공평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장애물..

그것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게임일 테니까요.

가장 공평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크기의 장애물을 주고 그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적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 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 32:4)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잠깐을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길에 설치된 허들..

우리에게 맞는 크기와 무게로 가장 적



당하게 허락하신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설치해 두신 장애물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 최선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

다.

요즘이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공평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살렘!!! 창골산 봉목사

이야기하늘나라

무신론적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민주주의

강제 권력 곧 주권의 소재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제왕은 신을 대신하여 모든 권력을 가진다는 중세기의 제왕신성설(帝王神聖說)이 있고, 국가적 자의식을 주장하는 독일 철학에 의한 범신론적(汎神論的) 국가 주권설이 있으며, 근세에 와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 주권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인민 주권으로 공화국을 세

운 나라는 1776년에 독립한 미국과 1789년에 이루어진 불란서 공화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민 주권이지만 불란서는 무신론의 인민 주권이었으므로 테러의 성행, 반(反)혁명 운동의 봉기, 나폴레옹 제국의 건설, 왕정의 복구, 나폴레옹 3세의 제국제전 등으로 19세기 중 불란서는 가장 수난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단두대에 아침 이슬로 사라진 청년

의 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기독교적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로서 그 헌법에 “감사하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관현을 택하는 권(權)을 주셨도다”라고 하였고 그 독립 선언서에는 “아메리카 국민은 자연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바릴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로, 일어나 노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미국은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제일 축복 받은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근본은 다 신에게 있다는 것의 증좌(證左)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에 없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권세를 얻든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닷컴 <기독교와 정치>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뛰어 넘는다



김남국 목사

2016년 10월에 쓴 글이지만 찬양이 감정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예배 현장 사역자의 실제적인 경험담이 들어 있어 찬양과 설교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어 읽습니다. - 편집자주

나는 예배 강의를 할 때 특정한 영상을 보여주고 청중의 반응을 살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영상에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놓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주었다. 소리 없는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내용에 관해 물었다.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다음에는 영상의 음성을 살려 제대로 들려주었다. 그 영상은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말자고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예배는 축제이기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에는 당연히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지만 감동만 잘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을 감격과 감동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음악이 주가 되어 있는 현대 젊은이들의 예배는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

다. 걸모습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듯하지만, 내용이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연히 찬양이 아니다.

예배는 내용의 전부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기에 말씀이 깊을수록 예배 또한 깊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은 '유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설교는 '교양 강좌'에 불과하다. 말씀이 빠진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서 근거해야 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야 한다. 예배는 말씀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깊이와 풍성함이 결정된다.

호주 시드니의 '워십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컨퍼런스 중에 "말씀이 없는 예배가 가능하니까?"라고 한 청년이 질문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떤 예배 인도자가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왜 가능한가?를 묻자 "찬양에도 말씀이 있으니까요"로 대답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네요. 질문자는 '말씀 없이 가능하냐?'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되물었다. 이 예배 인도자는 '말씀이 없는 예배를 '설교'가 없는 예배로 오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 없이 예배가 가능한가? 여러 가지 사정상 가능할 수는 있다. 선교지나 전문적으로 훈련된 설교 사역자가 없는 오지, 그리고 설교자를 세울 수 없는 교회 초기의 상황에서는 설교 없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가 약화되면 예배도 약화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 설교이기 때문이다. 찬양에도 말씀이 있고 기도도 말씀에 바탕을 두지만, 설교만큼 말씀을 잘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크스목요예배를 드러오면서 가장 중심을 두어 지도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한다.

예배 인도자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예배인도에 실패하게 된다. 예배자의 감정을 건드려 감정을 고조시키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예배 인도자들은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음악을 감정을 다루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변화에도 많은 감정적 효과를 일으킨다.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서,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

서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에게도 감정적인 흥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때 예배 인도자가 음악적 기교를 사용해서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예배의 열기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정이 폭발하는 예배의 경우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정적 경험으로 인해 예배를 더욱 잘 드렸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반면에 감정이 배제된 예배는 자칫 실패로 느껴지기 쉽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적 흥분을 조절하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인도하기란 쉽지 않다.

여름방학에 열리는 마크스목요예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예배자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때 마크스 예배 인도자들은 물론 더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배자들이 앞서 예배드리도록 한다. 예배자들이 감정적 흥분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깊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크스 지방투어 중에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흥분하여 앞으로 뛰어나와 찬양하려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인 심

종호 형제가 음악을 잠시 멈추고 "사람을 보고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라고 주의시켰다. 아주 묘한 멘트였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강력하게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예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해 한 것이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 예배자가 종호 형제의 말로 인해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고 예배 전 체에도 매우 강력한 영적 흐름이 있었음을 모든 예배자가 느꼈다.

마크스워십의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예배를 감정 이상으로 다루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마크스워십의 예배 인도자들은 모든 찬양의 방향을 설교를 향해, 즉 말씀 쪽으로 잡아 세워간다. 2-3주 전부터 설교자에게 문의해서 설교의 말씀과 내용에 대해서 설교자와 나누고 예배 콘터를 짠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예배에 사용된 음악을 미리 살피고, 특히 설교 후에 결단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무

엇인지 알고 올라가서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예배 인도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예배 전체가 음악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예배는 개인의 감정과 감격을 넘어서야 한다. 화음과 멜로디 그리고 비트의 음악적 감정이 충만한 것을 넘어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 그리고 설교자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며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인도자와 말씀 사역자의 삶에서 얼마만큼 경험되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좋은 예배가 결정된다. 음악은 도구일 뿐이다. 이를 통해 소문하고 공교하게 연결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예배는 개인의 감격과 감동을 넘어서 '하루에 사용된 음악을 미리 살피고, 특히 설교 후에 결단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무

◆ 김남국 목사
주내침교회 담임목사, 마크스워십 지도목사, 돌로스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예배갱신의 성경적 모델을 찾아서 (2)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 교회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는 다윗의 총체적 찬양과 경배의 일부 분이거나 왜곡·변질하여 그들의 예배 철학의 선호성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21세기 성경적 예배 갱신의 본질을 선점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로버트 웨버(Robert Webber)가 그의 『Worship: Old and New』(1994)에서 말하는 'Old'에 속한 각 교파의 예배의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지만, 'New'에 속한 차트의 예배형식 3개에 대해 상세히 연구·이해하고 근거를 정확히 하고 신학적·성경적 통찰과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이 면에서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교의 학문적 연구가 21세기 한국교회의 예배 갱신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와 로버트 웨버까지도 이 Old & New에서의 New를 찬양팀과 밴드 그리



김영국 목사

고 CCM의 레퍼토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팀의 출현 목적과 기원 및 원리는 찬양과 경배, 즉 시편 100편과 95편에서 나온 것이지 이사야 6장의 '예배의 정신'에서 온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교회의 'Blended Worship(통합적 예배)' 적용과 예배 갱신을 위하여 로버트 웨버의 연구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예배에 관한 학문적 업적과 정통적 교단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기본적 예배철학은 이사야 6장으로 한국 정통 개신교파의 예배철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파들이 그들의 예배 갱신을 쾅빙글리(Huldreich Zwingli)와 칼빈(John Calvin)의 예배음악 철학에 대하여 고민하는 대신 웨버의 Old & New의 Blending을 수용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방대한 연구와 예배신학은 그의 7권으로 된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의 갱신 방법의 제시는 Old와 New의 조화로, Old는 각 교파의 전통예배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파의 전통예배 형식의 본질과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성경적·신학적·전통적 분석으로 꼭 필요한 본질의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순서를 세우는 일이 연구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New는 그의 책과 여러 저명한 예배신학자들에 의한 것을 종합하여 시편에서 두 개의 새 예배형식을 소개하는데, 위의 차트에 나오는 시편 100편의 저드슨 콘웰(Judson Cornwall) '지성소 여정 예배형식'과 시편 95편의 존 윈버(John Wimber) '5단계 예배 곡선의 예배 형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Old & New 모두 구약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Old는 회당예배와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취한 예배형식에, 예배의 분위기와 정신은 이사야 6장의 예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교의 변질한 예배형식을 종교개혁자들이 회당과 초대교회의 본래 예배 정신으로 개혁하여 각 교파의 예배형식을 만들으

러서 현재의 전통예배가 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버는 예배의 개혁을 초대교회와 회당예배까지로 제한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배의 원리를 구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임시적이며 불안정한 회당예배의 뿌리를 찾아 700여 년 전 이사야의 예배 경험(사 6장)에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유추하여 소위 '이사야의 예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교파의 예배학자 저드슨 콘웰이 시 100편에서 발견한 찬양과 경배 이론의 출처인 '지성소 여정 예배 형식'과 다윗의 예배(콘웰의 이론을 기초로 함) 예배자 마음의 예배 곡선 '5단계 예배형식'을 개발하여 소위 빈야드 워십(Vineyard Worship, 1980년대)으로 예배 갱신의 세계적 영향을 끼친 존 윈버의 예배 갱신이 있습니다. 웨버는 이 두 개의 시편에서 나온 예배형식과 자신의 이사야 예배를 더하여, 새로운(New) 현대 예배형식과 전통적 예배형식으로 각 교파에 알맞은 Blended Worship을 디자인하는 성경적 예배 갱신을 추천한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현대 예배 갱신의 성경적 모델인 이사야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려 합니다. 차트에 나온 예배 갱신 모델에 대한 이해와 평가 그리고 검증을 시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논문인 『Isaiah: A Window into Biblical Worship』과 두 번째 논문인 『Davidic Worship: A Model for Renewal』은 Dr. Richard C. Leonard의 연구 논문인데, 그는 로버트 웨버의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의 경전 담당 독립 편집위원으로 이 예배 백과사전의 많은 부분에서 그의 글을 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Restoring Praise & Worship to the Church』(1989)에 나오는 <다윗 왕의 신약 예배>를 쓴 Dr. David E. Fischer의 논문과 『From Praise To Worship』을 쓴 Dr. Howard Rachinski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 논문과 저의 개인적인 연구 내용을 발전시켜 여기에 소개할 것입니다.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공부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 목사이며 스승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 동안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지금은 저서와 번역, 그리고 웹사이트 매거진 "예배음악"(Worship Music)에서 음악목회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음악목회 경험과 사역을 나누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장로교출판사가 펴낸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가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조선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야소> 포스터 공개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성경 번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교회를 모티브로 제작된 기독교 단편 극 영화 <야소>가 오는 5월 1일 유튜브 공개를 확정하며 두 가지 포스터를 공개했다. <야소>는 '예수의 한자 음독이다.'

공개된 포스터는 낙마(落馬)사고로 누워있는 사대부가 장손 재우와 성경으로 도배된 벽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성경말씀을 재해석한 성화를 담고 있다.

배급사인 커넥트픽처스는 "(야소)는 조선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며 "포스터 속 제목 '야소'에 표현된 십자가와 '내가 주를 보았다' 그가 살아 나셨다라는 카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찾아오신 야소(예수)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높인다고 했다.

조선후기,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장손인 재우는 낙마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방에만 누워지내는 불행한 신세가 된다. 집안사람들은 재우를 치료하고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기만 하다.

어느 날 집안의 종아이(개똥이)가 치유와 생명에 관한 책이라고 받아들인 성경책을 해일(집사)에게 전해주고 해일은

재우의 방안을 급서인 성경책으로 도배하게 된다.

누운 채 도배된 성경을 통해 '야소(예수)'를 알게 된 재우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믿음을 보며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 재우는 동생(재한)에게 '야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양화 화풍으로 펼쳐지는데...

순교와 한글성경을 통해 조선땅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야소>는 오는 4월 30일 제작보고회 및 VIP시사회를 진행하고 5월 1일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연기자에서 목회자로, 김대혜의 새로운 길

배우 김사랑 동생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

배우 김사랑의 친동생 김대혜가 연기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김대혜는 최근 개그우먼 정선희가 진행하는 유튜브 'C채널 힐링토크' 화북에 출연했다.

김대혜는 누나 김사랑의 영향으로 고3 때부터 연예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9년 MBC 드라마 '신데렐라 맨'으로 데뷔한 그는 15년간 배우로 활동했지만, 연기 분야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모델과 배우 활동 외에도 김대혜는 2010년 기획사를 운영하며 연예계 어두운 면을 많이 목격했다. 당시 겪은 일로 큰 좌절감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만난 목사의 조언으로 영감을 얻어 신학교에 입학,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현재 기획사 운영과 목회 활동을 병행 중인 김대혜는 지난 3년간 아프리카 20



김대혜 목사. ©'C'채널 힐링토크 화북

여 개국을 다니며 해외선교에 힘썼다. 우물 파기, 학교병원 건립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이나래 기자

과천소망교회, 해피플러스 이벤트 '블루밍 콘서트' 성료

소프라노 신은혜, 테너 하만택 등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소망교회(장현승 목사)가 과천시민을 위한 해피플러스 이벤트인 '블루밍 콘서트'를 열었다.

주최는 과천소망교회이며 코리아아르츠그룹이 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지난 14일 이 교회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소프라노 신은혜, 테너 하만택, 가수 김충훈 등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이번 콘서트는 과천로고스미술관에 서 개최되는 기획전 '봄, 앙스트블뤼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 이 전시회에는 샤갈, 아야코, 로카쿠, 쿠사마, 아오이 등의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봄, 앙스트블뤼테' 전시는 신이 선사

한 사랑과 행복의 선물을 주제로 진행되며, 다음 달 26일까지 과천로고스미술관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간회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군포제일(권태진)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매달기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생명의 말씀-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새바람-김승욱 목사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승(김형석)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힐링토크 화북 플러스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 말씀-정연수 원로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쌍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비전선교 라이프치히 심상수 목사 50 비전선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레알캠핑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انس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다바이블] 성지탐방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님니가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 성서학당 (조성욱)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Miracle Moment	40 다크 더 로드	0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상소)2	10 새롭게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성지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00 사장은님은 선교사 5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00 비전선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은누리교회 수요일성경예배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CBS뉴스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1:00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말씀] 임재연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레알캠핑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림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행복교회)	00 TV강단 든든한(장항희)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리아나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화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말씀의 힘 양곡 30 새롭게하소서	00 백석의 생터
	15:00	40 7000마리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양현(김동인) 30 TV강단 한성(도원욱)	00 힐링토크 화북 플러스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의 생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심경영 속 기독교 윤리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람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클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총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단(고경환)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복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Miracle Moment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2024 목회사관학교 50 [말씀] 권역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강단 남서울중앙(피종진)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	00 조용기 목사, 명실교	30 이스라엘로 (오상소)	0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용) 30 TV강단 정동제일(전영태)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루님을 기쁘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크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뉴스	10 나의 성지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10 오 자유어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잇위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10 새롭게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انس 구약
	23:00	20 CTS 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나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리바이츠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살롱 쉼표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나엘기도회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CBS 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묵음으로의 초대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성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령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리클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율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배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교회소식	00 선교는 지금 50 힐링토크 화북 플러스

Samsung
Financial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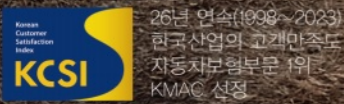
보이는 보험



어렵고
험난한 길은
삼성화재가
주저없이 달려가는 길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탄탄한 출동 네트워크로
고객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일상을 지키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6908호(2024.02.26~2025.02.25)